

許浚의 『診解救急方』에 관한 研究

鄭順德 · 車雄碩 · 金南一¹⁾

A Study of Heo Jun's 『Eonhaegukupbang』

Soon-duk Jung · Wung-suk Cha · Nam-il Kim

1. 『Eonhaegukupbang(診解救急方)』 is a medical book that was published and edited by Naeuiwon(內醫院) under the king's command in the Joseon Dynasty in 1607.

2. It includes the contents but doesn't a preface and an epilogue. And several medical treatments and herb medicines of diseases from emergency are noted in the original text of 『Eonhaegukupbang(診解救急方)』. The book is composed of two volume and 181 pages.

3. A number of cultural properties and medical books were lost and all people of the nation were suffered from poverty and diseases during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n some books of Korean translation of Chinese classics were edited under the king's command with the intention of recompiling the lost books and easy application of medical knowledge for the people.

4. 『Eonhaegukupbang(診解救急方)』 admit several books and notes the reference books at the beginning or the end. This book has 37 kinds of reference books, and those are 『Boncho(本草)』, 『Uihakgangmok(醫學綱目)』, 『Uihakimmun(醫學入門)』, 『Deukhyobang(得效方)』, 『Uihakjeongjeon(醫學正傳)』, 『Dan-gyebang(丹溪方)』 and so on in the main.

5. 『Gugupbang(救急方)』 (in the Sejo Dynasty) is similar to 『Eonhaegukupbang(診解救急方)』 in aspect of helping the people with convenient contents. But it is a point of difference that the composition and contents of 『Eonhaegukupbang(診解救急方)』 are more centering about the medical

1)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prescriptions than those of 『Gukupbang(救急方)』.

6. 『Eonhaegukupbang(診解救急方)』 is very similar to the 「Gukupmun救急門」 in the 『Donguibogam(東醫寶鑑)』 in the contents and construction of the list. 『Eonhaegukupbang(診解救急方)』 was published during the writing of 『Donguibogam(東醫寶鑑)』, so it has a deep meaning that 『Eonhaegukupbang(診解救急方)』 is a condensed version of easy application for the civilian by regulating already established section.

7. It seems that 『Eonhaegukupbang(診解救急方)』 has continuous influences in the part of emergency in the 『Donguibogam(東醫寶鑑)』.

Key words : 『Eonhaegukupbang(診解救急方)』, 『Donguibogam(東醫寶鑑)』, 『Gukupbang(救急方)』

1. 緒論

救急醫學²⁾³⁾은 의학의 특성상 응급상황에서 바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기때문에 증상의 감별이 쉬워야 하며, 처치법 또한 응급상황에서 곧바로 이루어질수 있어야 한다. 여러 의서들을 검토하던 중 許浚이 지은 『診解救急方』⁴⁾이 이러한 요건에 잘 부합되는바 『診解救急方』을

2) ‘救急醫學’을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여 위중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때 여러 가지 方法을 동원하여 빠른시간내에 조치하여 治療하는 의학’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3) 구급의학은 의료의 특성상 현장에서 바로 처치를 할 수 있어야 하기에 ‘침구의학’과 ‘향약의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① 박문현은 본인의 논문(2002)에서 ‘전통사회에서 鍼灸의가들은 종양이나 水腫 등 각종 외과영역의 질환에 대한 처치와 함께, 尸厥, 急死, 難産 등의 응급상황에 대처해야 할 경우가 많았다.(중략) 『鍼灸經驗方』에도 이러한 외과영역의 질환이나 危難症 및 急證에 대처했던 허임의 임상경험이 얼마간 기록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② 또한 이재동·김남일 공편의 『중국침뜸의학의 역사』에서 『新集備急灸經』을 ‘이 책은 당시에 유행된 침뜸전문 의사들의 뜸법을 모은 것으로, 藥物과 침뜸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후미진 지역의 백성들이 救急치료에 使用하기 편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鍼灸醫學’이 ‘救急醫學’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① 박문현, 許任 『鍼灸經驗方』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2002. ② 이재동·김남일 공편, 『중국침뜸의학의 역사』, 집문당, 서울, 1997.

강연석은 본인의 논문(2003)에서 ‘향약의학’은 ‘향약을 중심으로 處方을 구성하여 治療하는 의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救急처치시 현장에서 바로 使用할수 있는 약제는 대부분 향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救急醫學과 鄉藥醫學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 강연석, 『鄉藥集成方』의 本草 분석을 통한 朝鮮前期 鄉藥醫學의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2003.

4) 선조 41년(1608)에 許浚에 의해 간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목판본(윤해정(1997)) 중 상권만 구하고 하권을 구하지 못하였다. 목판본에는 ‘언해구급방’이라는 서명이 있으며, 許浚이 編刊했다는 내용이 적힌 한국의학대계에 실린 필사본과 비교하여 본 결과, 兩書에 가끔 漢字가 다른 것이 있을뿐 거의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 『언해구급방』 上下卷이 모두 존재하는 『한국의학대계 1』에 수록되어 있는 필사본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연구하고자 한다.

『診解救急方』은 조선시대에 許浚이 編刊한 救急醫書⁵⁾로 선조의 왕명을 받고 『東醫寶鑑』의 집필시작과 간행 사이에 『診解痘瘡集要』, 『診解胎產集要』와 거의 동시에 出刊하게 되었다.

『診解救急方』이 간행되기 전에 『救急方』이 있어, 일찌기 成宗때 의과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어 의생이나 의생지망자들에게 필독서였던 것⁶⁾을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유실되자 선조가 허준에게 명하여 다시 편찬하고 아울러 언해를 붙여 간행하게한 의서가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당시 민간인들의 질병 치료에 없어서는 안될 常備醫書⁷⁾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필자는 이러한 許浚의 『診解救急方』이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診解救急方』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국어학이나 서지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이루어져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의 국어사를 알아볼수 있었다⁸⁾.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는 『診解救急方』의 醫史學的으로나 醫學內的인 측면을 드러낼수 없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 救急醫學의 한 뿌리가 되는 許浚의 『診解救急方』을 의사학적, 의학내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許浚의 『診解救急方』과 기존 醫書와의 관계 정립을 하고, 『診解救急方』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許浚의 『診解救急方』의 특색뿐만 아니라 조선중기 救急醫學의 실상 또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이에 필자는 『診解救急方』의 형성과정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기존 의서들과 비교하고, 『診解救急方』의 내용분석을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구급의학의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고, 둘째로 『診解救急方』과 『救急方』의 異名인 『救急方診解』가 書名이 비슷한 까닭으로 同一書로 간주되고 있는 『救急方』⁹⁾과의 관계를 『診解痘瘡集要』의 跋文분석과, 兩書의 인용문헌, 구성형식, 내용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설정하고, 셋째로 『診解救急方』과 『東醫寶鑑』의 偏盛과정이 서로 비슷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중복되는 까닭으로 『診解救急方』이 『東醫寶鑑』에서 추출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그러한지 전체목차 비교와 내용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 넷째 『診解救急方』의 형태적 특징과 인용문헌과 내용을 분석하여 『診解救急方』의 형태적 특징, 救急의 정의, 救急치료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許浚의 『診解救急方』을 중심으로 한 조선중기 救急醫學에 대한 본 연구가 향후 한국구급의학사를 서술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II. 本論

5) ‘救急醫書’란 ‘救急醫學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한 專門單科醫書’로 정의한다. 기존에 救急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는 專門醫書를 일반적으로 ‘救急方’이라 부르고 있었으나, ‘救急方’이라고 부름으로 인하여 첫째 세종, 세조때 각각 출간된 『救急方』이라는 서적과 혼동의 여지가 있고, 둘째는 ‘救急方’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處方만을 기재한 책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으므로 새롭게 정의한다.

6) 經國大典. 卷3. 禮典. 諸科條의 醫科初試에 “纂圖脈, 銅人經誦, 直指, 得效方, 婦人大全, 瘡疹集, 胎產集要, 救急方, 和劑方, 指南 則誦, 本草, 經國大典臨文”이라 하고 있다.

7) 현재 『診解救急方』의 필사본이 2가지나 발견이 되었으며 그중 한 필사본은 鶴城李氏 가문에 전해내려오는 것으로 『診解救急方』이 가정상비의서로 활용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8) 논문으로는 ①윤혜정, 언해구급방의 국어학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1997. ②김중권, 허준의 언해구급방, 언해두창집요, 언해태산집요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울, 1994. 등이 있다.

9) 본문을 보면 한문으로 글을 쓰고 이어서 바로 언해가 되어 있다. 최현배(1960)에서 『구급방언해』라고 한 이후 국어학계에서는 관행적으로 『구급방언해』라고 부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급방』이라 하겠다.

1. 救急醫學의 역사

일상생활에서 경각을 다루는 急證이 있을때, 救急醫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저술한 것이다. 소매 뒤에 넣어두고서 쓸수 있는 처방집이라는 뜻의 『주후비급방』을 쓴 갈홍은 책의 서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 고급 의학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치료법을 모아서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후대에 나온 모든 구급의서에 공통되는 정신이다.

구급의학의 내용과 방법은 시대가 지나면서 더욱 다양해지고 세련되어져갔으니 전대의 작업이 완전히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본으로 내용을 약간 바꾸고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발전했다.

중국의 경우 『내경』에서 구급의학 이론을 정립하고, 장중경이 『상한론』에서 구급병 중 외감병에 관한 부분을 상세히 서술하면서 약물처방 이론을 제시했다. 썬의 갈홍은 『주후비급방』에서 “처방하나에 이론 하나”라는 원칙과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기록하는”전통을 세우면서 이 이론에 따라 구급의학의 전모를 분명히 했다. 수대에 나온 소원방의 『제병원후론』에서는 병의 이름과 증상, 병의 변화 등을 기술했고, 『비급천금요방』과 『천금요방』, 『외대비요』 등 당대의 저작에서는 구급방에 관한 이전의 주요 의학이론, 처방, 진찰법, 침구법 등을 모아 정리했다. 송대의 『화계국방』에서는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는 紫雪丹, 至寶丹, 蘇合香丸 등의 처방을 개발했으며, 금·원시대의 주진형과 이동원은 내상에 대한 구급이론과 처방을 제시했다¹⁰⁾.

우리나라의 救急醫學은 대부분의 종합의서의 한부분으로 존재하는 경우와 전문의서¹¹⁾의 형식인 救急醫書로 전해지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위급한 질병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여러 질환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우수한 處方을 선별하는 형식으로 향약의 연구와 병행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處方을 응용하고자 『濟衆立效方』, 『新集御醫撮要方』, 『鄉藥救急方』 등의 方書를 많이 만들었다¹²⁾. 우리나라의 救急醫書의 전통은 『향약구급방』에서 시작한다. 이 책은 각종 중독, 외상, 내상, 부인과, 소아, 잡병 등 5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약재의 향약이름이 실려있다. 현존하는 『향약구급방』은 고려때 판본이 아니라 조선 태종때(1417) 재간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이 책이 조선 초기까지도 널리 읽히는 분위기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이 책의 서문에서는 “『향약구급방』은 효험이 커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 수록된 모든 약은 우리나라 사람이 쉽게 알고 익힐 수 있는 것이고, 약을 쓰는 법 또한 경험한 것들이다”¹³⁾라고 말하고 있다.

『鄉藥救急方』의 재간과 함께 조선 초기에서 중기까지 전문의서의 형식인 救急醫書에 관한 책이 여러종 더 출간되었다. 『救急方』, 『救急簡易方¹⁴⁾』, 『救急易解方』, 『村家救急方』이 그것이다. 『救急方』은 1466(세조12)에 편찬되었으며, 『救急簡易方』는 1489년(성종20)에 편찬된 것이다. 『救急易解方』은 1499(연산군5)에 편찬되었으며, 『村家救急方』은 1538년(중종33)에 편찬되었다.

이 4종의 구급방은 각각 성격이 다르다. 『救急方』(2권)은 『醫方類聚』를 교정하여 만든

10) 이상의 내용은 傅景華·徐巖春, 『中醫急證大成』, 中醫古籍出版社, 1987 참조
 11) 종합의서와 전문의서에 대하여는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2000, pp20-28 에 잘 언급되어 있다.
 12) 한국한의학사 재정립, 한국한의학연구소, 1995, 서울, p.246
 13) 『향약구급방』 서문
 14) 『구급간이방』을 『구급간이방언해』라고도 부르는데 본 논문에서는 『구급간이방』이라 하기로 한다.

2차의서¹⁵⁾이며, 『구급간이방』(8권¹⁶⁾)은 『구급방』의 취사선택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내용을 크게 확충한 책이다¹⁷⁾. 『구급이해방』은 이전의 구급방들이 “어떤 것은 너무 호한하고, 어떤 것은 너무 간단하고, 어떤 것은 오직 향토 약재로만 구성되어 있어”문제가 있기 때문에 “널리 선택하되 꼭 필요한 것만 가리고, 증상에 따라 바로 약을 쓸수 있도록 해서 부녀와 아이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만든 것이다.¹⁸⁾ 이런 내용으로 보아, 이 책은 『구급간이방』의 복잡함, 『구급방』의 부적절함, 『향약구급방』의 향약 중심을 극복하기 위해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세 책과 달리, 『촌가구급방』은 김정국이 향촌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엮은 것으로, 민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약재와 향촌 노인들이 효험을 본 경험방을 수집해서 만든 의서이다.¹⁹⁾ 앞의 세 책이 이해되어 있는데 비해 『촌가구급방』은 이해되어 있지 않다.

관에서 편찬한 구급방은 전국에 보급되었다. 세조때 기록을 보면 “8도에 구급방을 각각 2부씩 내려보냈으며” 성종때에는 새로 편찬한 『구급간이방』를 “민간의 小民들도 모두 인출한 것을 얻도록 하라”는 배려가 있었다. 중앙에서 찍어 민간에 널리 배포하려던 이 계획은 각 도에서 찍어 민간에 배포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지만, 이를 통해 나라에서 구급방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 있다. 또, 구급방을 지방에 내려보낸 것은 조선 중기 향약으로 대표되는 지방 풍속의 교화와 연결된다. 즉, 미신에 빠지지 않고 약을 써서 병을 고치는 것은 민심의 교화에 이롭고, 또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병이 적어지면 통치의 효과가 있다²⁰⁾는 것이다²¹⁾.

2. 『診解救急方』의 저자 許浚의 生涯와 著作

許浚의 字는 淸源, 雅號는 龜巖이다. 그는 中宗34년(1539)에 父 許論과 母 金氏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며²²⁾ 許浚의 형제들로 허옥, 허정이 있다²³⁾. 허준의 유년기와 청년기에 대한 직접적인 행적이 남아 있지는 않다. 허준의 행적이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柳希春의 『眉巖日記』에 처음 등장한 이후 허준은 유희춘이 죽을 때(1577년)까지 그의 집안과 친지의 질병을 돌보는 일을 맡았다.²⁴⁾ 『미암일기』에는 유희춘이 선조2년(1569)에 허준을 내의원에 천거한 사실이 담겨 있는데, 이때 바로 추천이 받아들여졌는지는 확실치 않다.²⁵⁾ 또 선조4년(1571) 『미암일기』에 허준의 관직이 최초로 內醫院 宗4品 ‘僉正’으로 나타나 있다.²⁶⁾

선조8년(1575)에 허준이 선조를 진료했다는 기록이 『宣祖實錄』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는 御醫 安光翼²⁷⁾을 보조하여 임금의 병환을 진찰한 것이다.²⁸⁾

15) 안상우 외 학술정보팀, 의방유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1998, 서울, pp. 7-10

16) 신동원은 ‘조선사람 허준’에서 ‘8권’으로 밝히고 있으나, 한글학회 영인본의 ‘救急方’ 뒷부분에 실린 ‘김지용의 『救急方診解』 해제’에서는 ‘9’권으로 밝히고 있다.

17) 허중, 『구급간이방언해』, 한국학대계2, 여강출판사, 1994

18) 권건, 『구급이해방』, 「발문」(三木榮, 『朝鮮醫書誌』), 동경, 학술도서간행서, 1973에서 재인용)

19) 김안국, 『촌가구급방』 서문. 상계서 재인용

20) 중종실록, 1518. 4. 1 “김안국이 풍속을 교화할 서책과 의약에 관한 서책을 개간하여 널리 반포하기를 청하였다”

21)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2001, pp.248-251 요약 발췌

22) 신동원, 上揭書, pp.60-62

23)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일지사, 서울, 2000, p.99

24) 신동원, 上揭書, p.49, p.325

25) 신동원, 上揭書, p.49, p.325

26) 신동원, 上揭書, p.50, p.325

27) 安光翼 : 선조때의 명의, 同8년2월에 허준과 함께 입진하였다.→ 한의학교전연구소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한국의사문헌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94, 서울, p.36

28) 허진·홍원식, 許浚의 生涯와 東醫實錄에 對한 研究, 한국의사학논문집, 1995.8, p.107

선조11년(1578)에는 내의원 칙정으로 당시에 새로 간행된 『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²⁹⁾을 하사 받았다. 그가 선조14년(1581)에는 선조의 명을 받아 六朝때 高陽生이撰한 『纂圖脈訣』을 발췌 교정하여 『纂圖方論脈訣集成』³⁰⁾이란 서명으로 간행하였다.³¹⁾

선조8년(1575)부터 선조23년(1590)에 이르도록 入診侍藥의 공으로 인하여 선조23년(1590)에 虎皮의 賞賜, 堂上관의 加資를 특명 받았다.³²⁾

1592년5월23일(陰4월13일)에 임진왜란이 돌발되어 선조가 피난길에 오르자 허준은 어의로서 평양, 의주로 끝까지 扈從하여 왕의 건강을 돌보았다. 선조29년(1596)에는 모든 의서를 총 정리하여 알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찬할 것을 왕이 허준에게 명하자 儒醫인 鄭礎, 太醫 楊禮壽, 金應鐸, 李命源, 鄭禮男 등과 함께 내의원에 편국을 설치하고 그것을 주관하는 책임을 허준이 맡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듬해 정유재란으로 편국원들이 사망으로 흩어져 『동의보감』 편찬업무가 중지되었다. 선조31년12월(陰1598년11월) 노량해전을 끝으로 임진왜란이 7년만에 끝나자 선조는 다시 허준에게 명하여 의서 편집을 맡기고 內藏方書 500권을 내어 참고하도록 하였다. 그 후 허준은 15년만인 光海君2년(1610)에 『동의보감』을 완성하였다.³³⁾

1593년11월(陰10월)에 환도는 하였으나, 임진왜란의 여파로 곤궁과 질병이 전국에 만연하였다. 또 귀중한 문화재와 서적들이 약탈과 병화로 소멸되어 사용할 醫書마저 희귀하게 되었다. 선조34년(1601)에는 8월에 어의로서 正憲大夫 知中樞府使에 敍하고 선조의 명을 받아 『診解救急方』, 『診解痘瘡集要』, 『診解胎產集要』를 편찬하여 『診解救急方』은 선조40년(1607), 『診解胎產集要』와 『診解痘瘡集要』는 선조41년(1608)에 내의원에서 간행하였다.³⁴⁾

허준의 나이 66세 때인 선조37년(1604) 6월25일에 3등급인 忠勤貞亮扈聖功臣이라 하여 陽平君으로 봉해졌다.³⁵⁾ 同39년(1606) 정월에 양평군 正一品 輔國崇祿大夫의 資를 加하였는데, 중인출신에게 堂上官의 位階를 줌이 불가하다는 臺諫의 반대로 이는 취소되었다.³⁶⁾

선조41년(1608) 2월1일에 왕이 승하하자 持平 申光立과 具惠의 啓로 어의들은 시약을 잘 못했다는 죄로 파직을 당하였다. 光海君元年(1609) 4월24일에 사간원에서 허준을 귀양 보낼 것을 언청하였으나 同11월22일에 광해군이 허준을 방환하라는 명을 내리고 다시 복직시켜 首醫로서 본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⁷⁾

허준은 광해군2년(1610년)9월22일(陰曆8월6일) 25권의 『동의보감』을 완성하였다. 허준이 단독 작업으로 완성한³⁸⁾ 이 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널리 알려

29) 『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銅人腧穴鍼灸圖經』을 宋代 王惟一이撰한 鍼灸著作에 『鍼灸避忌太一之圖』一篇을 補入하여 『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이라 改名함. 현재 影印本이 나왔음 →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의사문헌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서울, p.43

30) 『纂圖方論脈訣集成』: 이 책은 조선 선조14년(1581)에 허준이 六朝때의 高陽生이撰한 『纂圖脈訣』을 발췌·교정하여 만든 맥진에 관한 의서로서 광해군4년(1611)에 개간하였다. 이 책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한독의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한의학대사전[한국의사문헌편]』 p.68

31) 金重權, 許浚의 『診解救急方』 『診解痘瘡集要』 『診解胎產集要』에 관한 書誌學的 研究, 중앙대학교, 서울, 1994, p.4

32) 金斗鍾, 『韓國醫學史』, 探求堂, 1993, 서울, p.314

33) 金重權, 前揭書, pp.6-7

34) 金重權, 上揭書 p.7

35) 金重權, 上揭書, p.8

36) 金斗鍾, 上揭書, p.314

37) 金重權, 上揭書 p.12

지고 입혀졌다³⁹⁾. 또 전국적으로 전염병과 기근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구제할 길이 없어 각 고을에 의서를 간행하여 반포하게 되는데, 이 때에도 허준이 왕명으로 광해군4년(1612)에 『新纂辟瘟方』을, 광해군5년(1613)에 『辟疫神方』을 편찬하여 내의원으로 하여금 간행케 하였다. 2년 후 광해군7년(1615)에 7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선조 때 보류된 부원군과 輔國의 加資를 追贈 받았다.⁴⁰⁾

조선왕조실록에는 선조8년부터 광해군7년까지 허준에 대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에 대한 호칭도 선조8년에 名醫, 선조20년에는 御醫, 선조28년에 醫官, 선조34년에 內醫, 선조38년에는 崇秋醫官, 광해군2년에는 太醫 등으로 표기되고 있었다.⁴¹⁾

3. 『診解救急方』의 편찬배경

『診解痘瘡集要』에 실린 허준의 跋文을 보면 “예전에 왕자가 두창에 걸려 증세가 좋지 않았으나 세속의 금기에 얽매어 감히 약을 쓰지 못하고 의관의 무리들은 팔짱을 끼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주상께서는 왕자가 비명에 간 것을 가슴 아파하시고 약을 쓰지 않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庚寅年(1590) 겨울 왕자가 또 이 병에 걸렸는데 성상께서는 지난 일을 기억하시고 … 중략 … 辛丑年(1601) 봄에 신에게 하교하시기를 ”평시에 『태산집』 『창진집』 『구급방』이 세상에 간행되었으나 왜란 후에는 모든 것이 없어졌다. 너는 마땅히 의론과 처방을 찾아 다루어 3종의 책으로 만들라. 그러면 내 그것을 몸소 볼 것이다. 또 왕실에 내장하고 있는 고금의 의서를 내줄 터이니 그것을 검토하고 편찬에 참고하라.”고 하셨습니다.⁴²⁾ 라는 내용이 있으니, 허준이 『동의보감』을 집필하던 중에 『診解救急方』, 『診解痘瘡集要⁴³⁾』, 『診解胎產集要』의 편찬을 선조로부터 명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기근과 전염병이 난무하여 사망자가 속출하던 급박한 상황으로 당시 의관이나 백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의서 간행이 절실하였기 때문이다.

『診解救急方』, 『診解胎產集要』, 『診解痘瘡集要』를 편찬 간행하게 된 동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왕자, 왕녀의 두역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린이와 서민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예방하자는 것과 또 하나는 선조조에 편찬한 『胎產集』 『瘡疹集』 『救急方』이 임진왜란으로 없어져 열람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미치는 질병의 고통을 생각해서 왕명으로 편찬 간인된 것으로 보인다.

4. 『診解救急方』 판본

『診解救急方』은 조선시대 許浚이 선조의 명을 받아 1607년에 내의원에서 간행한 의서로 선조 40(1607)⁴⁴⁾에 간행된 목판본과 필사본 3본이 있다. 본서는 현재 최현배(1960), 유창

38) ‘비록 서문에 공동작업이 있었음을 밝히기는 했지만, 책 출간의 절대적 공로자가 許浚임을 알수 있다. 그렇기에 『東醫寶鑑』은 許浚이 편찬했다고 해도 크게 지나친 말은 아니다’라고 신동원·김남일·여인석이 밝히고 있다. → 신동원·김남일·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서울, 1999, pp.1016-1017

39) 신동원·김남일·여인석(1999)에 따르면 ‘동의보감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크게 인기가 있었다. (중략) 그러나 아예 자체적으로 인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에서는 무려 16차례나 발간되었다. (중략) 일본에서는 2차례에 걸쳐 출간되었는데 (하략)’이라 하고 있다.

40) 前掲書 pp.13-14

41) 허진·홍원식, 앞의 책, p.111

42)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7冊』, 여강출판사, 1994, 서울, p.288

“昔歲, 王子染痘, 證勢不順, 而拘於俗忌, 未敢下藥, 醫官之輩, 袖手待盡, 自上痛念非命, 悔不用藥, 歲在庚寅之冬, 王子, 又染此疾, 聖上, 追憶往事 …中略… 辛丑之春, 下教于臣曰, 平時有胎產集, 瘡疹集, 救急方, 刊行于世, 亂後皆無矣, 爾宜搜撫醫方, 以成三書, 予欲親覽焉耳, 出內藏古今醫書, 令其檢討, 以資撰集.”

43) 선조34년(1601) 8월에 許浚이 발문을 쓰고, 선조41년(1608)에 李希憲과 李彥各의 감독하에 내의원에서 간행되었다.→김민수, 『診解痘瘡集要』의 醫史學적 高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2003.

돈(1964, 1984:810), 小倉進平(1964)에게 선조 41(1608)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전해지고 있으며⁴⁵⁾, 필사본으로는 ‘崇禎六年癸戌四月日傳書’라는 筆瀉期가 있는 것으로 高正儀 교수의 ‘〈諺解救急方〉의 一考察’에 발표된 것⁴⁶⁾과 규장각과 鶴城李 집안에 전해내려오는 것으로 3가지가 있다.

한독의학박물관에 소장된 필사본은 확인대조해본 결과 『諺解救急方』이 아니었으며, 세종때 출간된 『救急方』⁴⁷⁾으로 세조때 출간된 동명의 『救急方』과도 다른 책이다. 또한 『諺解救急方』이 일본의 봉좌문고에 목판본이 있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규장각 필사본(『한국의학대계·1책』)을 기준으로 하면서 다른 판본등을 참조하였다⁴⁸⁾.

5. 『諺解救急方』과 『救急方』의 관계⁴⁹⁾

『諺解救急方』은 허준의 編著로 선조40(1607)년에 간행한 의서이며, 『救急方諺解』라고도 불리는 『救急方』은 세조때 간행한 의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해제들을 보면 이 두 책의 서명이 비슷한 까닭으로 同一書로 간주되거나⁵⁰⁾, 『諺解救急方』이 세조때에 간행한 『救急方』에 다만 언해만 첨가했다는 설이 주장되고 있다.⁵¹⁾

예를 들면 『국어대사전⁵²⁾』에 “언해구급방 → 구급방언해”라고 참고지시 표시를 하여 두 책을 동일시하고 있다. 또한 金信根의 『韓國醫學書巧⁵³⁾』에서도 ‘이 책은 조선시대 세종의 명을 받아 撰한 구급방을 선조때 허준이 언해하여 선조40(1607)년에 개간한 것으로서 상하 2권2책으로(중략) 원본은 현재 일본의 봉좌문고에 소장되어 있다’라고 하고, 인용서목도 구급방언해의 인용서목을 언해구급방 인용서목으로 나열하고 있다. 또한 金斗鍾의 『韓國醫學史』⁵⁴⁾에서도 “언해구급방 2권 世祖命撰, 許浚 諺解, 선조40년(만력35년) 내의원 개간 (중략) 본서는 세조초에 된것인데, 선조 40년(만력35년)에 허준이 교를 받들어 언해하여 내의원에서 개간하였다. (중략) 본서의 인용서목에는 直指方, 千金方, 和劑方, 聖惠方 등의 唐宋醫方이외에 鄉藥救急方, 鄉藥集成方, 醫方類聚, 本朝經驗方 등의 우리나라 醫方書들이 열거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李漢水の 『韓國齒學史』⁵⁵⁾에서도 “구급방 본서도 세종조에 편집된 것으로 알려

44) 윤혜정, 『諺解救急方』의 국어학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1996, 서울, p.7

45) 前掲書, p.6

46) 前掲書, p.6에 언급되어 있다.

47) 世宗命撰의 이 책은 세조대 간행된 언해본 『救急方』과는 편제가 다르다. 刊年은 미상이며 목판본 잔결본이 서울대 규장각과 한독의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세종의 재위년간(1419-1450)으로 간행시기를 추정할 수밖에 없으나 의방유취 초판시기를 前後로 선후관계가 인정된다. → 안상우 외 학술정보팀, 前掲書, p.4

48) 목판본과 규장각 필사본을 대조해본 結果 兩書가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목판본의 경우 유실된 쪽수와 글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여럿 있어서 규장각 필사본인 한국의학대계1을 기본으로 하였다.

49) ‘구급방’과 ‘언해구급방’, ‘동의보감’과 ‘언해구급방’의 관계에 대하여는 金重權(1994)도 언급하고 있으나 본고와 다른 부분이 있어 본고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 金重權, 許浚의 『諺解救急方』, 『諺解痘瘡集要』, 『諺解胎産集要』에 관한 書誌學的 研究, 中央大學校, 서울, 1994.

50)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66

諺解救急方, 諺解痘瘡集要, 諺解胎産集要, 서울, 亞細亞文化史, 1973

國語國文學辭典, 東亞文化研究所, 서울, 1981

국어대사전, 이희승 편저, 民衆書林, 서울, 1997

李漢水, 韓國齒學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金信根, 韓國醫學書巧,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51) 李漢水, 前掲書

52) 이희승 편저, 前掲書

53) 金信根, 前掲書

54) 金斗鍾, 前掲書

진다. 2권으로 그 원본의 자세한 내용은 미상이다. 선조 40년인 1607년, 許浚이 본서를 언해하여 언해구급방이라하여 간행하였다”라고 하고 그가 주장한 언해구급방 치과관계 항목은 救急方診解 ‘十四 吐血下血篇’의 내용이며, 인용문헌으로 밝힌 『朱氏集驗方』 『聖惠方』 등도 救急方診解의 인용서이다. 또한 그는 그이 저서에 언해구급방은 “선조 34년인 1607년에 許浚에 의해 세조때 간행되고 또 선조때에 한 번 개찬되었던 것을 다시 국문으로 번역 개찬한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診解痘瘡集要』의 발문과, 兩書의 인용문헌과, 형식과, 내용의 비교를 통하여 『救急方』과 『診解救急方』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診解痘瘡集要』의 跋文 분석

『診解痘瘡集要』의 跋에 “下教又臣曰平時有胎產集瘡疹集救急方利用又世亂後皆無矣爾宜搜撫醫方以成三書”이라는 내용이 있으니 壬辰亂을 겪으면서 『胎產集』, 『瘡疹集』, 『救急方』 등이 없어졌으므로 허준이 왕명을 받아 고금의서를 참고하여 『診解救急方』, 『診解胎產集要』, 『診解痘瘡集要』 등을撰한 것이다.

2) 『救急方』과 『診解救急方』의 인용문헌 비교 분석

인용문헌의 비교 분석은 『救急方』 56)에 나오는 항목과 같은 항목을 본서에서 찾아 동일 항목에 대한 인용문헌의 비교를 해보니 兩書의 인용문헌도 서로 다르고, 인용된 횟수도 달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救急方』의 인용문헌

『救急方』에는 “中寒(凍瘡 凍死 附), 中暑, 中氣, 中惡中惡鬼氣, 鬼壓鬼打, 卒死, 卒心痛(腹痛 附), 霍亂吐瀉(沙證附), 尸厥, 纏喉風喉閉(喉腫 舌腫 失音 附), 骨鯁, 脫陽陰縮, 吐血下血(齒間出血 九竅出血 附), 大小便不通, 溺死, 自縊”의 16개의 항목에서 “聖惠方, 經驗良方, 千金要方, 壽域神方, 經驗秘方, 得效方, 衛生簡易方, 肘後方, 直指方, 葛氏備急方, 聖濟總錄, 澹療方, 官見大全良方, 醫方集成, 朱氏集驗方, 和劑方, 百一選方, 經驗救急方, 衛生寶鑑, 本朝經驗方, 備急大全良方, 衛生十全方, 簡要濟衆方, 和劑局方”의 24종의 의서가 인용되고 있다.

의서별 인용횟수는 다음과 같다.

聖惠方 15, 經驗良方 11, 千金要方 10, 壽域神方 8, 經驗秘方 5, 得效方 衛生簡易方 各4회, 肘後方 直指方 葛氏備急方 聖濟總錄 各 3회, 澹療方 官見大全良方 醫方集成 朱氏集驗方 和劑方 各2회, 百一選方 經驗救急方 衛生寶鑑 本朝經驗方 備急大全良方 衛生十全方 簡要濟衆方 和劑局方 各 1회이다.

인용된 의서를 구급방의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5) 李漢水, 前掲書

56) 『한국의학대계·1책』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1】 『救急方』의 목차와 인용문헌

『救急方』 목차	인용문헌
中寒(凍瘡 凍死 附)	和劑方, 聖惠方, 聖濟總錄, 百一選方, 得效方, 衛生寶鑑, 衛生十全方, 聖惠方, 本朝經驗方
中暑	聖惠方, 千金要方, 官見大全良方
中氣	和劑方, 澹療方
中惡鬼氣	經驗良方, 聖惠方, 千金要方, 葛氏備急方, 衛生簡易方, 壽域神方
鬼魔鬼打	經驗良方, 千金要方, 聖惠方, 備急大全良方
卒死	千金要方, 肘後方, 聖惠方, 千金要方
卒心痛(腹痛附)	聖惠方, 經驗良方, 壽域神方, 千金要方
霍亂吐瀉(沙證附)	經驗良方, 葛氏備急方, 直指方, 聖惠方, 經驗秘方, 醫方集成, 壽域神方
尸厥	經驗良方, 聖惠方, 葛氏備急方
纏喉風喉閉(喉腫 舌腫 失音 附)	經驗良方, 朱氏集驗方, 經驗秘方, 直指方, 衛生簡易方, 聖惠方, 壽域神方
骨鯁	醫方集成, 經驗良方, 朱氏集驗方, 聖惠方, 經驗秘方, 衛生簡易方, 壽域神方
脫陽陰縮	經驗良方, 聖惠方, 聖濟總錄
吐血下血(齒間出血 九竅出血 附)	經驗良方, 經驗秘方, 澹療方, 衛生簡易方, 壽域神方, 肘後方, 聖惠方, 直指方, 千金要方, 得效方
大小便不通	聖惠方, 聖濟總錄, 經驗良方, 肘後方, 千金要方, 簡要濟衆方
溺死	經驗良方, 聖惠方, 千金要方, 官見大全良方, 壽域神方, 得效方
自縊	千金要方, 經驗救急方, 得效方, 壽域神方, 經驗秘方

(2) 『診解救急方』의 인용문헌

『救急方』과 비교하기 위하여 『診解救急方』에서 『救急方』의 목차에 해당하는 부분 “中寒(凍瘡 凍死 附), 中暑, 中氣, 中惡中惡鬼氣, 鬼魔鬼打, 卒死, 卒心痛(腹痛附), 霍亂吐瀉(沙證附), 尸厥, 纏喉風喉閉(喉腫 舌腫 失音 附), 骨鯁, 脫陽陰縮, 吐血下血(齒間出血 九竅出血 附), 大小便不通, 溺死, 自縊”과 목차가 일치하거나 거의 같은 부분을 추려내어 “中寒, 凍死, 中暑, 尸厥, 卒死, 中惡, 鬼魔, 癲狂, 頭痛, 心痛, 腹痛, 霍亂, 喉閉, 舌腫, 失音, 諸骨鯁, 吐血, 九, 出血, 大便不通, 小便不通, 溺水死, 自縊死”의 목차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추려낸 『診解救急方』의 21개의 항목에서 “本草, 丹心, 綱目, 得效, 入門, 正傳, 類聚, 直指, 經驗, 回春, 靈樞, 醫鑑, 山居, 內經, 三因, 諸方, 仲景, 華佗, 千金, 種杏, 明理, 子和”의 22종의 의서가 인용되고 있다⁵⁷⁾.

각문헌의 인용횟수를 살펴보면 本草46회, 丹心22, 綱目21, 得效18, 入門14, 正傳6, 類聚5, 直指4, 經驗4, 回春4, 靈樞3, 醫鑑3, 山居3, 內經3, 三因2, 諸方2, 仲景2, 華佗1, 千金1, 種杏1, 明理1, 子和1의 순이다.

57) 『診解救急方』 원문에는 인용문헌의 구체적인 서명이 銘記되어 있지 않다. 『診解救急方』의 내용과 비교적 유사한 부분이 많고, 또한 인용문헌의 구체적인 서명이 銘記되어 있는 『東醫寶鑑』의 내용에서 역추적하는 方法으로 인용문헌을 추적하였다.

【표 2】 『診解救急方』의 목차중 『救急方』에 해당하는 부분의 인용문헌

『診解救急方』 목차	인용문헌
中寒	醫鑑, 入門
凍死	綱目, 得效
中暑	三因, 丹心
尸厥	入門, 丹心, 內經
卒死	諸方, 本草, 綱目
中惡	華佗, 得效, 本草
鬼魘	千金, 丹心, 得效, 諸方, 綱目
癲狂	入門
頭痛	本草, 得效, 靈樞, 入門
心痛	本草, 丹心, 綱目, 靈樞, 入門, 醫鑑
腹痛	丹心, 綱目, 得效
霍亂	得效, 正傳, 丹心, 本草, 山居, 正傳, 明理, 直指, 入門
喉閉	正傳, 直指, 綱目, 本草, 丹心, 得效, 經驗, 入門, 靈樞
舌腫	入門, 綱目, 丹心, 子和, 回春, 本草, 正傳, 得效
失音	本草, 本草, 丹心, 本草
諸骨鯁	本草, 醫鑑, 綱目, 類聚, 丹心, 得效, 回春, 直指
吐血	本草, 經驗, 丹心
九竅出血	本草, 經驗
大便不通	綱目, 本草, 得效, 丹心
小便不通	本草, 經驗, 類聚, 綱目
溺水死	入門, 仲景, 得效
自縊死	仲景, 山居, 本草

(1)(2)를 통해 살펴본 결과 『救急方』과 『診解救急方』의 동일 항목에 대한 인용문헌을 비교해 보니 『救急方』은 聖惠方, 經驗良方, 千金要方, 壽域神方, 經驗秘方, 得效方 衛生簡易方, 肘後方 直指方 葛氏備急方 聖濟總錄, 澹療方 官見大全良方 醫方集成 朱氏集驗方 和劑方, 百一選方 經驗救急方 衛生寶鑑 本朝經驗方 備急大全良方 衛生十全方 簡要濟衆方 和劑局方 순으로 인용이 되었고, 『診解救急方』은 本草, 丹心, 綱目, 得效, 入門, 正傳, 類聚, 直指, 經驗, 回春, 靈樞, 醫鑑, 山居, 內經, 三因, 諸方, 仲景, 華佗, 千金, 種杏, 明理, 子和의 순으로 인용이 되어 兩書의 인용문헌이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3) 『救急方』과 『診解救急方』의 구성의 비교

『救急方』은 각 병명을 적고 글앞에 인용문헌을 적은후 그 인용문헌의 내용을 증상 治療法의 순서에 따라 적고 있으며, 인용문헌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도 각각의 인용문헌에 따라 적고 있다. 그러나 본서는 인용문헌이 없이 하나의 병명에 대하여 병명을 적고 증상을 기술한후 治療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尸厥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救急方』의 경우 經驗良方, 聖惠方, 葛氏備急方을 인용하여 尸厥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각각의 문헌에 대하여 문헌명을 적고 증상을 적은후 藥物치료, 鍼灸치료등을 적고 있다.

『救急方』의 尸厥⁵⁸⁾
 經驗良方 其證奄然死去四肢逆冷不省人事腹中氣走如雷鳴 焯焯半兩 硫磺一兩 (하략)

문헌명	증상	치료법
聖惠方	治尸厥脉動而無氣氣閉不通故正如死(중략)	宜服朱砂丸(하략)
문헌명	증상	치료법
葛氏備急方	尸厥之病 卒死而脉猶動	灸鼻人中七壯(하략)
문헌명	병명	증상 치료법

다음으로 본서를 살펴보면 인용문헌의 銘記없이 목차아래 병명을 적고 증상 治療法을 적고 있다.

『診解救急方』의 尸厥 ⁵⁹⁾		
尸厥之病	身脈皆動以形無知(중략)	急用蘇合元三丸薑湯或溫酒灌下(하략)
병명	증상	치료법

요약해 보면 『救急方』과 『診解救急方』의 구성 차이는 첫째 『救急方』은 인용문헌위주로 증상 치료법을 서술하고 있는데 비하여 『診解救急方』은 내용위주로 서술하고 있으며, 둘째로 『救急方』은 인용문헌을 적고 있으나 『診解救急方』은 인용문헌을 적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4) 『救急方』과 『診解救急方』의 내용의 비교

『救急方』과 『診解救急方』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증상부분은 거의 유사하나 치료법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

尸厥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병명은 兩書 모두 尸厥로 동일하며, 증상은 『救急方』이 ‘其證奄然死去四肢逆冷不省人事腹中氣走如雷鳴，尸厥脉動而無氣氣閉不通故正如死聽其耳中脩脩有如嘯聲而股內暖者是也不治三日當死 尸厥之病卒死而脉猶動’，본서가 ‘尸厥之病身脈皆動以形無知其狀尸故名尸厥之證卒死脉猶動四肢逆冷腹中氣走如雷鳴聽其耳中如微語聲者是也命在頃刻急’로 내용은 유사하지만 서술은 다르며, 治療를 보면 內服法, 灸法은 兩書가 동일하고 쓰고 있는 方法이지만 『救急方』은 내복법에 炤炤, 硫磺, 附子, 朱砂丸을 사용하고 있으며 겸하여 百會, 氣海, 丹田, 人中, 陰囊下去下部一寸, 婦人兩乳中間을 灸하라고 하였으나 본서에서는 內服法에 蘇合元, 故汗衣燒灰末, 菖蒲汁를 사용하고 百會, 氣海, 關元을 灸하라고하여 동일한 方法을 사용했다해도 실제 治療내역에서는 다른 부분들이 많다. 또한 본서에는 없고 『救急方』에서만 人中, 百會, 足大趾甲下內側去甲三分足指甲上을 鍼刺하며, 熨法을 행하라고 하였으며 본서에서는 臑關을 이용해 힘껏 숨을 불어넣는 吹耳法을, 『救急方』에서는 菖蒲가루를 코에 불어넣는 吹鼻法을 사용하고 있다.

『診解救急方』과 『救急方』이 간편한 내용으로 대중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두 책의 성격이 비슷하지만, 『診解痘瘡集要』의 발문에서 『救急方』의 소실로 다시 救急方의 편찬을 명하였다는 점, 兩書의 인용문헌을 살펴보았을때 『救急方』은 聖惠方, 經驗良方, 千金要方, 壽域神方, 經驗秘方, 得效方, 衛生簡易方, 肘後方, 直指方, 葛氏備急方, 聖濟總錄등 24종의 의서를 인용하였으나 『診解救急方』의 경우 本草, 丹心, 綱目, 得效, 入門, 正傳, 類聚, 直指, 經驗, 回春, 靈樞, 醫鑑, 山居등 22종의 의서를 인용하였으니 인용문헌이 확연히 다를 수 있고, 兩書의 구성 차이는 첫째 『救急方』은 인용문헌위주로 증상 치료법을 서술하고 있는데 비하여 본서는 내용위주로 서술하고 있으며, 둘째로 『救急方』은 인용문헌을 적고 있으

58) 이후 언해생략
59) 이후 언해생략

나 본서는 인용문헌을 적고 있지 않다는 점이며, 내용을 비교해 보아도 서로 다르니 『救急方』과 『診解救急方』은 별개의 서적임을 알수 있었다.

6. 『診解救急方』과 『東醫寶鑑』의 관계⁶⁰⁾

본서는 『東醫寶鑑』 편찬 과정에서 왕명을 받고 『東醫寶鑑』의 간행에 앞서 간행된 서적으로⁶¹⁾ 본서와 『東醫寶鑑』은 첫째 저자가 동일 인물이며, 둘째 편찬하기 시작한 때가 『東醫寶鑑』이 선조 29(1596)년이고 본서가 선조 34(1601)년으로 동의보감이 5년이나 앞서 있고, 셋째 간행시기에 있어서는 본서가 선조40(1607)년이고 『東醫寶鑑』이 광해군 5(1613)년으로 『東醫寶鑑』이 5년뒤에 간행된 것이며, 네째 간행처가 내의원으로 동일하다. 이와 같이 『東醫寶鑑』과 본서는 저자 및 간행처가 동일하고, 또한 『東醫寶鑑』 편집중에 編刊되었고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본서가 단순히 『東醫寶鑑』 중 救急에 대한 내용을 추출하여 모은 축약본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두 서적의 전체 목차의 비교와, 내용의 비교를 통해 정말로 그러한지 아닌지 알아보고자 한다.

1) 『診解救急方』과 『東醫寶鑑』의 목차의 비교

언해구급방은 동의보감에서 어느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소재의 위치와 내용의 차는 어떠한가를 분석하여 보았다.

60) 이 항목에 대하여는 金重權(1994)도 언급하고 있으나 본고와 다른 부분이 있어 본고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 金重權, 許浚의 『診解救急方』, 『診解痘瘡集要』, 『診解胎產集要』에 관한 書誌學的 研究, 中央大學校, 1994

61) 동의보감은 宣祖29年(1596)에 왕명으로 撰시작하여 光海君2年(1610)에 완성을 한 종합의서이며 언해구급방은 宣祖40年(1607)에 간행된 구급의서이다.

【표 3】 『診解救急方』의 편성체제에 따른 증상과 『東醫寶鑑』 증상의 대비

『診解救急方』		『東醫寶鑑』
中風	雜病篇卷2	風條-卒中風救急, 取嚏法, 開噤法, 取吐法
破傷風	"	風-破傷風治法, 單方
中寒	雜病篇卷3	寒下-中寒證
陰陽易	"	寒-陰陽易證
中暑	"	暑-中暑救急
氣厥	內景篇卷2	痰飲, 氣厥
痰厥	"	痰厥
食厥	雜病篇卷4	內傷條-食厥
尸厥	雜病篇卷9	救急-尸厥
卒死	"	救急-卒死
中惡	"	救急-中惡
鬼魘	內景篇, 雜病篇	夢-寢睡法, 救急-鬼魘
邪祟	雜病篇卷7	痰瘡, 邪祟-邪祟形證, 單方
癲狂	內景篇卷1	神-癲狂
上氣	"	上氣
頭痛	外形篇卷1	頭-吐法, 鼻法, 厥逆頭痛, 頭痛不治難治證
心痛	外形篇卷3	胸-單方, 冷心痛, 眞心痛, 心胃痛宜吐, 針灸法
腹痛	"	腹-腹痛凶證, 鍼灸法
疝痛	外形篇卷4	前陰-疝病之因, 奔豚疝氣, 單方, 鍼灸法
霍亂	雜病篇卷5	霍亂-濕霍亂治法, 霍亂形證, 霍亂後轉筋, 單方, 禁忌法, 霍亂有乾有濕, 水疾吐瀉, 霍亂灸法
喉閉	外形篇卷2	咽喉-單乳蛾雙乳蛾喉痺, 單方, 鍼灸法
舌腫	"	口舌-舌腫, 單方, 鍼灸
諸骨鯁	"	咽喉-獸骨鯁, 魚骨鯁, 穀賊, 單方
誤吞金鐵	"	咽喉-誤吞諸物
諸蟲誤吞	"	咽喉-誤吞諸蟲
飛絲入口眼	外形篇卷1	眼-眯目飛塵飛絲
眯目	"	眼-眯目飛塵飛絲
失音	內景篇卷2	聲音-卒然無音, 單方
咳逆	雜病篇卷5	咳嗽-咳逆治方
吐血	內景篇卷2	血-單方, 嘔血吐血
衄血	"	血-衄血 麝香散, 止衄法
九竅出血	"	血-九竅出血
眼睛突出	外形篇卷1	眼-被物撞打
失欠脫頰	外形篇卷2	口舌-失欠脫頰
大便不通	內景篇卷4	大便-大便不通, 單方, 罨臍法
小便不通	"	小便-小便不通, 單方, 罨臍法
入井塚卒死	雜病篇卷9	救急-入井塚卒死
自縊死	"	救急-救自縊死
溺水死	"	救急-救溺水死
凍死	"	救急-救凍死
饑死	"	雜方-救饑死, 單方
斷穀不飢藥	"	雜方-斷穀不飢藥, 單方

諸獸傷	雜病篇卷9	諸傷-諸獸傷
狂犬傷	"	諸傷-諸獸傷
諸蟲傷	"	諸傷-諸蟲傷
諸蟲入七竅	雜病篇,內景篇	救急-蛇入七竅, 耳-諸蟲入耳
金瘡傷	雜病篇卷9	諸傷-金刃傷, 金瘡脈候
打撲傷	"	諸傷-單方
墮壓傷	"	諸傷-擲撲墮落壓倒傷
筋斷骨折傷	"	諸傷-骨折筋斷傷, 單方
諸刺傷	"	諸傷-簽刺傷
湯火傷	雜病篇卷8	諸瘡-湯火瘡
飲食毒	雜病篇卷9	解毒-救諸中毒方
諸藥毒	"	解毒-救諸中毒方
諸肉毒	"	解毒-救諸中毒方-諸獸肉毒
諸魚毒	"	解毒-救諸中毒方-諸魚毒, 蟹毒
諸果毒	"	解毒-救諸中毒方-果毒
諸菜毒	"	解毒-救諸中毒方-菜蔬毒
蟲毒	"	解毒-蠱毒畜養家
疫癘	雜病篇卷7	瘟疫-不傳染法, 單方
大頭瘡	"	瘟疫-大頭瘡證
癰疽	"	癰疽-癰疽灸法, 疔疽, 癰疽
大風瘡	雜病篇卷8	諸瘡-大風瘡
天疱瘡	"	諸瘡-天疱瘡
陰蝕瘡	"	諸瘡-陰蝕瘡
烟熏毒	"	雜方-解烟毒
難產	雜病篇卷10	婦人-十產候, 交骨不開難產
胞衣不下	"	婦人-胞衣不下
急慢驚風	雜病篇卷11	小兒-驚風證, 慢驚風
痘瘡黑陷	"	小兒-痘瘡諸證
諸穴論		없음
俗方藥		"
瘡疾藥		"
常食相忌		"
藥酒方文		"

중풍은 동의보감 잡병편 권2 風條에, 기궤는 내경편 권2 痰飲條에, 두통은 외형편 권일 頭條 등에 기재되어 있다.

각조의 내용을 각각 대비해 『診解救急方』은 내용만 간단하게 적고 治療法도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東醫寶鑑』은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들어 兩書의 中風條를 보면, 『診解救急方』에는 중풍, 파상풍의 내용만 간단하게 적고 단방처방만 기재되어 있으나, 동의보감 잡병편 권이 風條의 내용에는 中風微漸, 調治預防, 熱生風, 肥人多中, 中風所因, 中風大證, 賊風虛邪中人, 中風大法有四, 中風之名各不同, 脉法, 風有中血脉中腑中臟之異, 卒中風救急, 開噤法, 取嚏法, 取吐法, 熏法, 不治證, 暴仆, 暴瘡, 精神蒙昧, 口眼喎斜, 手足癱瘓, 四肢痠痿搖擗爲風疾, 痰涎壅盛, 中風熱證, 風宜調氣, 風非大汗則不除, 風病須防再發, 小中不須深治, 中風能食, 傷風證, 諸風病名, 病治法, 諸風通治, 風痺之始, 三痺, 五痺, 痺脉, 痺病形證, 痺病吉凶, 痺病多兼麻木, 風痺與痿相類, 病難治, 痺病治法, 痺證病名及用藥, 歷節風病因, 歷節風證狀, 歷節風治法, 忌法, 破傷風病因, 瘥與瘳通稱破傷風, 破傷風形證, 破傷風脉, 破傷風治法, 風之治同傷寒三法, 風之治同傷寒三法, 瘥有剛柔二證, 瘥與癩相似而實不同又不可作風治, 破傷風凶證, 單方, 針灸法 등 61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이 61개 항목중 언해구 급방의 내용은 표에 나타나있듯이 卒中風救急, 開噤法, 取嚏法, 破傷風治法, 單方の 6개 항목

과 유사하다.

【표 5】 『東醫寶鑑』 목차에 따른 『診解救急方』의 목차 비교

『東醫寶鑑』 篇名 및 目次		『診解救急方』 목차
內景篇	卷二	氣厥, 上氣, 吐血, 衄血, 九竅出血, 鬼魘, 失音, 痰厥
	卷四	小便不通, 大便不通
外形篇	卷一	頭痛, 飛絲入口眼, 眇目, 眼睛突出, 諸蟲入七竅
	卷二	舌腫, 失欠脫頰, 喉閉, 諸骨鯁, 誤吞金鐵, 諸蟲誤吞
	卷三	心痛, 腹痛
	卷四	疝痛
雜病篇	卷二	中風, 破傷風
	卷三	中寒, 陰陽易, 中暑
	卷四	食厥
	卷五	霍亂, 咳逆
	卷七	疫癘, 大頭瘟, 邪祟, 癰疽
	卷八	湯火傷, 大風瘡, 天疱瘡, 陰蝕瘡
	卷九	諸獸傷, 狂犬傷, 諸蟲傷, 金瘡傷, 打撲傷, 墮壓傷, 筋斷骨折傷, 諸刺傷, 飲食毒, 諸藥毒, 諸肉毒, 諸魚毒, 諸果毒, 諸菜毒, 蟲毒, 尸厥, 卒死, 中惡, 鬼魘, 入井塚卒死, 自縊死, 溺水死, 凍死, 諸蟲入七竅, 饑死, 斷穀不飢藥
	卷十	難產, 胞衣不下
	卷十一	急慢驚風, 痘瘡黑陷

표1,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내경편 권일, 권삼, 잡병편 권일, 권육 등에는 본서의 내용이 없지만, 내경편, 외형편에 본서의 내용이 고루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잡병편 권구에 본서의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언해구급방의 내용이 “구급문”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고 동의보감의 거의 전권에 걸쳐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은 본서가 민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다수의 구급상황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본서의 부록을 제외하고는 兩書의 항목과 배열 순서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항목설정에 『東醫寶鑑』과 상호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東醫寶鑑』 卷九의 내용이 본서와 상당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兩書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診解救急方』과 『東醫寶鑑』의 내용의 비교

언해구급방은 동의보감의 목차와 내용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으므로 언해구급방이 동의보감에서 구급에 해당하는 부분만 모아둔 축약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내용을 비교검토한 결과 언해구급방이 단순하게 동의보감 중에서 구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아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언해구급방과 동의보감의 목차와 내용이 완전히 같은 항목은 하나도 없으니 첫째 언해구급방에는 있으나 동의보감에는 없는 항목이 있으며, 둘째 같은 목차라도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 있으며, 셋째 같은 목차로 내용이 대부분 유사하나 군데군데 동의보감에는 없는 내용도 들어있으며, 넷째 같은 목차이며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하더라도 같은 문장은 거의 없으며 필요한 단어 위주로 편집을 하거나, 적어도 다른 한자로 되어 있으며, 다섯째 ‘針灸法’은 동의보감과 본서가 일치하는 부분이 적고 대부분 다르며, 여섯째 동의보감에서 인용을 할 때 대부분 한 부분에서 인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서로 다른 부분에서 인용한 경우도 있다. 각 항목에 대하여 한두가지씩만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診解救急方』에는 있으나 『東醫寶鑑』에는 없는 부분이 있다.

‘氣厥’, ‘難産’과 부록으로 ‘諸穴論, 俗方藥 瘡疾藥, 常食相忌, 藥酒方文’이다.

둘째. 같은 목차라도 내용이 다른 것이 있다.

‘破傷風’, ‘痰厥’, ‘陰蝕瘡’, ‘烟熏毒’, ‘難産’, ‘胞依不下’, ‘痘瘡黑陷’ 등이다. 각조의 내용을 각각 대비해 『診解救急方』은 증상을 간단하게 적고 治療法도 간단하여 주로 단방위주인 반면 『東醫寶鑑』은 원인, 감별, 증상, 맥 등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치료법도 처방약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診解救急方』의 ‘破傷風’은 ‘破傷風의 원인과 증상을 설명하고 처치법으로 蜈蚣가루로 치아를 문질러 침이 흐르게 하거나, 瘡口를 蟻螞의 肚內黃水로 도포하고 다시 熱酒를 떨어뜨리면 잠시후 瘡口의 감각이 무더지고 머리에 땀이 약간 나면 낫는것이다⁶²⁾’라고 하였으나 동의보감에서는 ‘破傷風의 원인과 瘡와 瘡을 破傷風이라고 통칭한다는것, 破傷風形證, 破傷風脉, 破傷風治法으로 玉眞散, 水調膏, 參歸養榮湯, 瓜蒌枳實湯, 全蝎散, 大蜈蚣散, 二烏丸, 烏蛇散, 朱砂指甲散, 烏鴉散, 香膠散, 一字散, 退風散, 急風散, 防風當歸散, 當歸地黃湯의 처방을 사용하며, 破傷風의 치법은 傷寒三法과 같으므로 防風湯, 羌活防風湯, 羌麻湯, 小芎黃湯, 大芎黃湯, 左龍丸, 白朮湯, 白朮防風湯을 사용하며, 瘡有剛柔二證, 瘡與癰相似而實不同又不可作風治, 破傷風凶證’이 있다고 하였다. 언해구급방의 ‘痰厥’은 ‘痰厥의 증상을 설명하고 처치법으로 바로 구할 수 있는 油, 竹瀝, 鷄子黃, 清心元 등을 흘려넣어 담을 토하게 하면 살아난다’고 하였으나, 동의보감에서는 ‘痰厥의 원인, 증상을 설명하고 加味二陳湯, 清火化痰湯, 鶴頂丹, 小兒方奪命散 등의 약물을 복용하라’고 하였다.

셋째. 같은 목차로 내용이 대부분 유사하나 중간에 동의보감에는 없는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食諸魚中毒에서 ‘河豚’, ‘蟹’ 중독의 내용은 동의보감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나 ‘膾不消’의 경우 동의보감에서는 ‘多食生膾不消胸膈不快瓜蒂散(方見吐門)吐之若日久成癥病:大黃朴硝陳皮各三錢水煮頓服下之’라 하고 본서에서는 ‘食膾不消生薑汁飲一升卽消又取水中石數十枚燒亦積五升水中七次熱飲卽消’라 하여 서로 다른 치료법을 보이고 있다. ‘上氣’條의 ‘早者十全七八 次者十全四五 遲者十不全一’이란 구절은 동의보감에 없다.

넷째 같은 목차이며 내용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완전히 같은 문장은 없으며 필요한 단어위로 편집을 하거나, 적어도 다른 한자로 되어 있다.

편집은 누구나 아는 증상이나 반복되는 단어, 내용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글자가 아닌것 등을 생략하였으며, 긴구절을 짧은 단어로 대치시키거나, 어절이나 단어를 도치시키거나, 필요한 단어만 가져오거나 하여 문장이 최대한 간단하도록 하였다.

① 증상의 생략:

‘諸肉毒’에서 『東醫寶鑑』에서는‘食諸肉中毒或吐下血胡荽子一升煮取汁停冷每服半升日二又胡荽一升煮取汁冷服半升又生韭汁飲之又燒豬骨末和水服又犬屎燒灰和酒服’이라 하였는데,

언해구급방에서는 ‘或吐下血’을 생략하고 있다. 또한 『東醫寶鑑』에서는

‘食雉肉中毒吐下犀角末和水服一錢或以水濃磨取汁飲’라 하였으나 본서에서는 ‘食雉肉中毒犀角末和水服一錢或以水濃磨取汁飲’이라하여 ‘吐下’를 생략하고 있다.

62) 破傷風: 凡瘡瘍未合風入爲破傷風濕入爲破傷害人最急 其證腰背反張四肢強直口噤身冷不知人死在朝夕急用蜈蚣細末擦牙吐出涎沫立甦 又急取蟻螞三五箇剪去尾將肚內黃水塗林瘡口再滴少入熱酒脈厚覆衣少頃瘡口覺麻而腦微汗立效

② 반복되는 단어의 생략:

주로 반복되는 복용하는 법 ‘飲之’ 등을 생략하였는데 약물을 나열하다가 마지막에 ‘皆飲’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하고 있다. ‘諸魚毒’에서 동의보감은 ‘食蟹中毒生藕汁冬瓜汁煮蒜汁飲之並佳又紫蘇葉煮汁飲之子汁飲之亦良又黑豆汁豉汁並解之’라 하였는데 본서에서는 ‘食蟹未生霜者多有毒若中其毒 紫蘇葉濃煮汁 或生藕汁 或蒜汁 或冬瓜汁 皆飲 又芦蓬茸煮汁飲之’라 하여 동의보감에서 ‘生藕汁冬瓜汁煮蒜汁飲之, 紫蘇葉煮汁飲之子汁飲之’를 인용하면서 반복되는 ‘飲之’를 생략하고 마지막에 ‘皆飲’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하고 있다.

③ 내용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글자가 아닌 경우의 생략:

주로 ‘之’를 생략하고 있으며,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용상 없어도 되는 글자 등을 생략하고 있다.

‘諸肉毒’ 중 동의보감에서는 ‘食鵝鴨肉中毒糯米泔或溫酒飲之又秣米水研取汁飲一盞’이라 하였는데 본서에서는 ‘食鵝鴨肉中毒糯米泔或溫酒飲又秣米水研取汁飲一盞’이라 하여 ‘之’를 생략하고 있다. ‘諸菜毒’중 『東醫寶鑑』에서는 ‘食菓中毒猪骨燒灰和水服又桂皮濃煎取汁飲之又服瓜蒂散吐之即愈’라 하였는데 본서에서는 ‘食諸果中毒桂皮濃煎飲之又猪骨燒爲末溫水和一盞服又瓜蒂末一盞溫水調服吐之即差’라 하여 동의보감의 ‘又桂皮濃煎取汁飲之’를 ‘桂皮濃煎飲之’라 하여 ‘取汁’을 생략하고 있다. ‘諸藥毒’중 동의보감에서는 ‘大戟毒中此毒令人冷泄不禁煎薺苳汁飲之又菖蒲搗取汁飲之’라 하였는데 본서에서는 ‘大戟毒令人冷泄不禁薺苳煎汁飲之又菖蒲汁飲之’라 하여 ‘菖蒲搗取汁’을 ‘菖蒲汁’이라 하여 ‘搗取’를 생략하고 있다.

④ 긴구절을 짧은 단어로 대체시킨 경우:

‘諸肉毒’에서 『東醫寶鑑』에서는 ‘食狗肉不消心下堅脹口乾發熱妄語煮蘆根取汁飲之又杏仁一升去皮研水三升煎去滓分三服利下血片爲效’라 하고, 『診解救急方』에서는 ‘食狗肉中毒蘆根煮濃汁飲之又杏仁研水煮取汁飲之’라 하여 『東醫寶鑑』의 ‘不消心下堅脹口乾發熱妄語’부분을 『診解救急方』에서는 ‘中毒’이라는 짧은 단어로 대체시키고 있다.

⑤ 어절이나 단어를 도치시킨 경우:

문장내에서 어절을 바꾼 경우도 있고, 단어내에서 글자를 바꾼 경우도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斑猫茺青毒]中此毒令人吐逆不止急用菉豆或黑豆或糯米和水研取汁服之又藍汁飲之又猪肪服之又澤蘭葉掇取汁飲’라 하였는데 본서에서는 ‘斑猫茺青毒毒令人吐逆不止急用菉豆或黑豆或糯米和水研取汁服又猪脂服之又藍汁飲之’라 하여 ‘又藍汁飲之又猪肪服之’를 ‘又猪脂服之又藍汁飲之’로 어절을 도치시키고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草烏川烏天雄附子毒-黑豆濃煎飲汁’라 하였는데 본서에서는 ‘草烏人麻痺暈悶 黑豆濃煎汁飲之’라 하여 ‘飲汁’를 ‘汁飲’로 도치시키고 있다.

⑥ 필요한 단어만 가져온 경우:

주로 약물을 가져오고 있으며, 증상 등 필요한 단어만 가져온 경우가 있다. ‘斷穀不飢藥’의 경우 동의보감에서는 약물과 복용법을 적고 있는데 본서에서는 ‘黃精, 朮, 薯蕷, 旋菴根, 橡實, 芋, 蔓菁 並蒸食或煮食 又 大棗, 栗, 榛子, 海松子, 皆宜食之 又蠟嚼食一塊終日不飢’라 하여 간단히 약물명만 적고 복용법은 한꺼번에 적고 있다. ‘九竅出血’에서 동의보감은 ‘人卒大驚則九竅血皆溢出謂之九竅出血 卒驚悸九竅血皆溢出新屠猪羊血熱飲二升即止又人有九竅四肢指歧間出血乃暴驚所爲取新生犢子臍中屎燒灰和水服日三四次又小薊搗取汁一盞酒半盞調和頓服乾者爲末冷水調服’라 하고 있는데 본서에서는 ‘人卒大驚則九竅血皆溢出 或四肢指歧間出血’이라하여 동의보감의

뒷부분중에서 ‘四肢指肢間出血’만 가져오고 있다.

다섯째 ‘鍼灸法’은 동의보감과 본서가 거의 다르며, 일치하는 부분이 간혹 있다.

여섯째 동의보감에서 서로 다른 부분에서 인용한 경우가 있다.

‘諸蟲入七竅’는 잡병편 중 救急의 蛇入七竅와 외형편 중 耳의 諸蟲入耳의 두부분을 토대로 하여 쓰여지고 있다.

『東醫寶鑑』의 편찬과정중에 본서의 편찬과 발간이 있는 상황으로 볼때 두 서적은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東醫寶鑑』과 본서를 대비해본 결과 『東醫寶鑑』은 내용이 세밀하고 한문으로만 이루어져 전문성을 띤 종합의서인 반면 본서는 내용이 간략하여 위급상황에서 쉽게 내용을 파악하여 구급할수 있도록 언해가 되어 있는 單科專門醫書인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본서와 『東醫寶鑑』의 내용이 유사한 항목이 많이 있으니

『東醫寶鑑』의 내용을 가려뽑아 본서의 내용을 구성한 항목도 다수 있으며, 각각 항목과 증상은 같지만 내용이 다른 항목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볼때 본서가 단순히 『東醫寶鑑』의 救急에 해당하는 부분만 모아놓은 축약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본서의 부록을 제외하고는 兩書의 항목과 배열 순서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항목설정에 『東醫寶鑑』과 상호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東醫寶鑑』 卷九의 내용이 본서와 상당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兩書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7. 『診解救急方』의 분석

1) 형태적 특징

(1) 인용문헌을 밝히지 않고 있다

허준의 저술서 중에서 인용문헌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은 이 책이 유일하다. 인용문헌은 의학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라 허준은 자신의 모든 책⁶³⁾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밝힌 바 있다. 그 이유는 구급의사의 목적성과 허준의 구급의료에 대한 자신감, 시대적 요구로 인하여 救急醫書 출간을 급박하게 추진했기 해석된다.

救急醫書의 목적은 알아보기 쉽고 바로 이용할 수 있어야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용의 명확성보다는 내용의 간결성이 중시된다. 이에 본서의 형식은 먼저 해당구급상황의 간략한 증상을 적은후 즉석에서 바로 할 수있는 처치를 적은후 약물치료에 대한 내용을 적고 침구 치료를 할수 있는 혈자리를 제시하고 있다⁶⁴⁾. 하나의 인용문헌을 이용하여 증상이나 치료법등을 기술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문헌을 참고로하여 증상과 치료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인용문헌을 기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治療내용들을 살펴보면 『東醫寶鑑』에는 없는 내용들이 종종 섞여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허준의 판단에 의하여 治療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것은 許浚의 구급의료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된다.

63) 찬도방론맥결집성(1581), 언해구급방(1607), 언해태산집요(1608), 언해두창집요(1608), 동의보감(1610), 신찬벽온방(1613), 벽역신방(1613) → 신동원·김남일·여인석, 前掲書

64) 예) 卒中風 昏仆 不省 口眼 喎斜 手足 不遂 急以 手大 指爪 甲搯 刺人中 卽醒 又用 皂角 末吹 鼻(중략) 針灸法 合谷 病명 증상 즉석처치 藥物치료 침구 치료
人中 針之 又 百會 大椎 風池 肩井 曲池 間使 足三里 各灸七壯 痰塞不省聲如曳鋸藥物不入 氣海 關元穴 灸二三百壯卽甦

『診解痘瘡集要』의 跋文을 보면 『救急方』이 전란으로 인하여 소실되어 없어진 상황에서 그것을 대체할만한 서적의 출간이 급박하게 요구되었다. 癰疽門 거의 마지막쯤에 “不書診”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 이후로는 언해된 것이 없고 한문원문만 나오고 있다. 이것은 언해구급방이 나머지 부분에 언해를 붙일 겨를도 없이 급하게 출간되어 인용문헌을 일일이 밝혀 적을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는 단서가 된다.

(2) 『診解救急方』의 출간은 감교관 뿐만 아니라 부제조· 제조· 도제조까지 관련되어 있다

『診解救急方』의 형식은 비슷한 시기에 허준이 편찬한 『診解胎產集要』, 『診解痘瘡集要』와 두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이 엿보인다. 첫째는 뒤의 두 책이 내의원 감교관 수준에서 편집된 것인데 비해 『診解救急方』의 출간은 감교관 뿐만 아니라 부제조, 제조, 도제조까지 관련되어 있다⁶⁵⁾. 그것은 구급방의 편찬이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의사가 없는 궁벽한 시골에서도 급증이나 경증의 자가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서적들보다도 더욱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한문원문에 바로 이어 언해가 되어 있다.

한글창제 이후부터 개화기 이전에는 번역을 보통 언해라 불렀는데, 중앙에서만 간행되던 언해서가 16세기에 들어서는 지방에서도 간행되기 시작하였고, 17세기 이후부터는 校正廳의 經書診解의 보급으로 언해서가 보편화 되었다.

이러한 언해의 확대는 한글을 보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문자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번역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의 향상과 학문의 발달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는 유교경전, 불교서, 교화서, 기술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언해가 이루어졌다.⁶⁶⁾

『診解救急方』이 나온 것도 당시의 이런 분위기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허준은 醫書의 번역을 통해 당시 일상 생활에서 필요하면서도 실제로 서민들이 보기가 어려운 의학 지식을 보급하는데 기여를 했다.

또한 본서에서의 한글 표기는 당시 17세기 초의 표기법으로 국어의 발전사를 연구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본서가 17세기 초라고 하지만 본서의 편찬이 1601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6세기말에서 17세기로 넘어오는 과도기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診解救急方』은 기본적으로 병명, 증상, 간단한 치료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해구급방의 전권에 걸쳐 공통된 기본 형식은 먼저 해당구급상황의 병명을 적고 간략한 증상을 적은후 즉석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처치를 적은후 단방약, 처방약에 대한 내용을 적고 침구 치료를 할수 있는 혈자리를 제시하고 있다. 예후, 원인, 기타치료법(熨法, 方術 등)등이 거론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2) 『診解救急方』의 인용문헌

『診解救急方』은 救急醫書의 특성상 許浚의 저작중에서 인용문헌이 銘記되지 않은 유일한

65) 『診解痘瘡集要』: 萬曆三十六年正月日內醫院開刊, 監教官 通訓大夫 行內醫院直長 臣 李希憲, 通訓大夫 行內醫院 奉事 臣 李絡

『診解胎產集要』: 萬曆三十六年正月日內醫院開刊, 監教官 通訓大夫 行內醫院直長 臣 李希憲, 通訓大夫 行內醫院 奉事 臣 李絡

『診解救急方』: 萬曆三十五年六月日內醫院開刊 全書, 都提調 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臣 柳永慶, 副提調 嘉義大夫 行 承政院 都承旨 臣 權愷, 監教官 通訓大夫 行內醫院 主簿 臣 李絡, 通訓大夫 內醫院直長 臣 申得一

66) 安秉禧, 診解의 史的 考察, 민족문화 제11집, 민족문화추진회, 1985, 서울, pp.7-26

책이다. 본서의 인용문헌을 『東醫寶鑑』과 비교하여 원전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찾아내 보았다.

【표 6】 『診解救急方』의 증상별 인용문헌

『診解救急方』	인용문헌	『診解救急方』	인용문헌
中風	醫鑑, 直指, 俗方, 丹心	溺水死	入門, 仲景, 得效
破傷風	綱目	凍死	綱目, 得效
中寒	醫鑑, 入門	饑死	類聚, 千金, 本草
陰陽易	活人, 入門	斷穀不飢藥	本草
中暑	三因, 丹心	諸獸傷	入門, 本草, 綱目
氣厥		狂犬傷	本草
痰厥		諸蟲傷	綱目, 本草
食厥	回春	諸蟲入七竅	丹心, 綱目, 得效, 本草
尸厥	入門, 丹心, 內經	金瘡傷	病源, 聖惠, 得效, 本草
卒死	諸方, 本草, 綱目	打撲傷	本草
中惡	華佗, 得效, 本草	墮壓傷	得效, 綱目, 本草
鬼魘	千金, 丹心, 得效, 諸方, 綱目	筋斷骨折傷	種杏, 得效, 本草, 回春, 丹心
邪祟	病源, 本草	諸刺傷	本草
癲狂	入門	湯火傷	得效, 本草
上氣	本草	飲食毒	本草, 俗方, 入門
頭痛	本草, 得效, 靈樞, 入門	諸藥毒	綱目, 入門, 諸方, 種杏, 醫鑑, 本草
心痛	本草, 丹心, 綱目, 靈樞, 入門, 醫鑑	諸肉毒	入門, 本草
腹痛	丹心, 綱目, 得效	諸魚毒	本草, 綱目
疝痛	內經, 丹心, 本草, 俗方, 得效	諸果毒	本草
霍亂	得效, 正傳, 丹心, 本草, 種杏, 山居, 明理, 直指, 入門	諸菜毒	本草, 綱目
喉閉	正傳, 直指, 綱目, 本草, 丹心, 得效, 經驗, 入門, 靈樞	蟲毒	入門, 三因, 得效, 本草
舌腫	入門, 綱目, 丹心, 子和, 回春, 本草, 正傳, 得效	疫癘	種杏, 本草, 丹心, 入門, 得效
諸骨鯁	本草, 醫鑑, 綱目, 類聚, 丹心, 得效, 回春, 直指	大頭瘟	海藏, 綱目, 正傳, 精義, 回春, 丹心
誤吞金鐵	本草, 類聚, 入門	癰疽	直指, 入門, 本草, 資生, 綱目, 精要, 正傳, 瑞竹, 丹心, 種杏, 種杏
諸蟲誤吞	入門, 種杏	大風瘡	脩然子, 直指, 本草, 內經, 正傳
飛絲入口眼	綱目, 正傳	天疱瘡	種杏, 入門
昧目	綱目, 本草	陰蝕瘡	
失音	本草, 丹心	烟熏毒	
咳逆	三因, 綱目	難產	得效, 本草
吐血	本草, 經驗, 丹心	胞衣不下	良方, 產書, 本草
衄血	本草, 東垣, 種杏	急慢驚風	直小, 得效
九竅出血	本草, 經驗	痘瘡黑陷	
眼睛突出	類聚	諸穴論	
失欠脫頤	三因, 得效	俗方藥	
大便不通	綱目, 本草, 得效, 丹心	瘧疾藥	
小便不通	本草, 經驗, 類聚, 綱目	常食相忌	
入井塚卒死	入門	藥酒方文	
自縊死	仲景, 山居, 本草		

상기 표에서 본파와 같이 본서의 인용문헌은 本草, 綱目, 得效, 入門, 丹心, 正傳, 種杏, 直指, 回春, 類聚, 俗方, 內經, 三因, 諸方, 千金, 山居, 病源, 靈樞, 醫鑑, 經驗, 丹心, 仲景, 精義, 聖惠, 海藏, 活人, 資生, 精要, 瑞竹, 脩然子, 直小, 子和, 東垣, 華佗, 明理, 良方 產書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에 열거된 인용서들은 漢唐이래의 고전의서인 內經, 千金方 등을 비롯하여, 송원대에 이르는 三因方, 直指方, 活人方, 東垣, 得效方 등을 들 수 있으며, 醫鑑, 綱目 등은 명초의 의서들이다. 이들의 인용횟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7】 『診解救急方』의 인용문헌 및 인용횟수

시대	인용문헌	횟수	시대	인용문헌	횟수	시대	인용문헌	횟수
한당이전	內經	5	송원대	直指方	9	명초	種杏	10
	千金方	4		三因方	5		正傳	13
	靈樞	3		東垣	1		經驗良方	4
	仲景	2		丹心	32		精義	2
	華佗	1		得效方	36		綱目	41
	病源	3		山居	3		入門	30
	明理	1		良方	1		本草	184
	脩然子	1		資生方	1		醫鑑	5
			聖惠	1	回春	7		
			活人	1				
			精要	1	조선	類聚	6	
			海藏	1		產書	1	
			子和	1				
			直小	1	기타	俗方	5	
			瑞竹	1		諸方	4	

이 책에 인용된 의서는 37 종이며 그것을 시대별로 보면 중국한당이전의 의서가 8종, 송원 이전의 의서가 15종, 명초의 의서가 9종 조선 선조 이전의 의서가 2종 기타 민간 속방 의서가 2종이다. 전체적으로 430번의 인용이 있었는데 本草-184회, 綱目-41, 得效-36, 入門-30, 丹心-32, 正傳-13, 種杏-10, 直指-9, 回春-7, 類聚-6, 俗方-5, 內經-5, 三因-5, 諸方-4, 千金-4, 山居-3, 病源-3, 靈樞-3, 醫鑑-5, 經驗-4, 仲景-2, 精義-2, 聖惠-1, 海藏-1, 活人-1, 資生-1, 精要-1, 瑞竹-1, 脩然子-1, 直小-1, 子和-1, 東垣-1, 華佗-1, 明理-1, 良方-1, 產書-1 회씩 인용되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사항이 주목할 만하다. 첫째는 단방약에 관한 정보를 담은 『본초』를 일등하게 많이 인용하였다는 점으로 본서의 내용구성에 있어서 백성들이 병이 들었을때 쉽게 약을 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單方藥 위주로 기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초』의 내용은 다른 救急醫書들이 거의 인용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전의 救急醫書들이 거의 인용하지 않은 명대 의서 의학강목, 의학정전, 고금의감, 만병회춘, 의학입문 등을 자주 인용했으며 반면에 이전의 구급방이 중시한 송대의 성제총록이나 태평성혜방 중에서 성혜방만 단 1회만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3) 구급의학의 정의

현재 救急醫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데, 본 논문에서는 『診解救急方』을 분석하여 救急醫學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았다.

(1) 구급의 외형적 범위

허준의 언해구급방은 69개의 병증과 5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診解救急方』의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표 8】 『診解救急方』의 目錄

◎ 卷上

中風 / 破傷風 / 中寒 / 陰陽易 / 中暑 / 氣厥 / 痰厥 / 食厥 / 尸厥 / 卒死 / 中惡 / 鬼魘 / 邪祟 / 癲狂 / 上氣 / 頭痛 / 心痛 / 腹痛 / 疝痛 / 霍亂 / 喉閉 / 舌腫 / 諸骨鯁 / 誤吞金鐵 / 諸蟲誤吞 / 飛絲入口眼 / 眇目 / 失音 / 咳逆 / 吐血 / 衄血 / 九竅出血 / 眼睛突出 / 失欠脫頰 / 大便不通 / 小便不通 / 入井塚卒死 / 自縊死 / 自縊死 / 溺水死 / 凍死 / 饑死

◎ 卷下

諸獸傷 / 狂犬傷 / 諸蟲傷 / 諸蟲入七竅 / 金瘡傷 / 打撲傷 / 墮壓傷 / 筋斷骨折傷 / 諸刺傷 / 湯火傷 / 飲食毒 / 諸藥毒 / 諸肉毒 / 諸魚毒 / 諸果毒 / 諸菜毒 / 蟲毒 / 疫癘 / 大頭瘟 / 癰疽 / 大風瘡 / 天疱瘡 / 陰蝕瘡 / 烟熏毒 / 難產 / 胞衣不下 / 急慢驚風 / 痘瘡黑陷 / 諸穴論 / 俗方藥 / 瘡疾藥 / 常食相忌 / 藥酒方文

69개의 병증은 대체로 일관된 흐름을 지니고 있는데, 차례대로 외감 구급 5개, 내상구급 3개, 정신관련구급 6개, 몸의 각 부분에 생긴 구급 22개, 위급상황 5개, 여러 가지 상처 11개, 여러가지 중독 6개, 역병과 악병 6개, 부인 구급 2개, 소아구급 2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내용⁶⁷⁾은 다음과 같다.

【표 9】 『診解救急方』의 내용별 묶음

- 외감 구급(5개): 中風, 破傷風, 中寒, 陰陽易, 中暑
- 내상 救急(3개): 氣厥, 痰厥, 食厥
- 정신 관련 救急(6개): 尸厥, 卒死, 中惡, 鬼魘, 邪祟, 癲狂
- 몸의 각 부분에 생긴 救急(22개): 上氣, 頭痛, 心痛, 腹痛, 疝痛, 霍亂, 咽喉, 舌腫, 諸骨鯁, 誤吞金鐵, 諸蟲誤吞, 飛絲入口眼, 眇目, 失音, 咳逆, 吐血, 衄血, 諸竅出血, 眼睛突出, 失欠脫頰, 大便不通, 小便不通
- 위급상황(5개): 入井塚卒死, 自縊死, 溺水死, 凍死, 饑死
- 여러가지 상처(11개): 諸獸傷, 狂犬傷, 諸蟲傷, 諸蟲入七竅, 金瘡傷, 打撲傷, 墮壓傷, 筋斷骨折傷, 諸刺傷, 湯火傷,
- 여러가지 중독(6개): 飲食毒, 諸藥毒, 諸肉毒, 諸魚毒, 諸果毒, 諸菜毒, 蟲毒, 烟熏毒
- 역병과 악병(6개): 疫癘, 大頭瘟, 癰疽, 大風瘡, 天疱瘡, 陰蝕瘡
- 부인 救急(2개): 難產, 胞衣不下
- 소아 救急(2개): 急慢驚風, 痘瘡黑陷
- 부록: 諸穴論, 俗方藥 瘡疾藥, 常食相忌, 藥酒方文

위의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診解救急方』의 구급의 범위는 일상생활에서의 위급상황 전반적인 것을 포괄하고 있다.

부인과 소아에 대한 구급이 단지 2가지씩만 기술된 것은 선조로부터 3서의 출간을 동시에 명을 받고 『診解救急方』이 나온 1년후에 바로 연이어 나온 자매서격인 『診解胎產集要』와 『診解痘瘡集要』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구급의 내용적 범위

본서를 분석하여 구급상황이란 어떤 상황이며 어떠한 범위를 포함하는지 알아보았다.

‘食厥’條에 ‘急暴之證疾如中風’이라는 구절은 구급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니 구급상황은 급하고 사나운 증상으로 빠르기가 바람맞은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러한 구급상황을 크게 다섯가지로 대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갑자기(卒, 急暴, 忽然) 정신을 잃고 쓰러져(昏仆)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不知人, 不識人, 不省人事)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不急救) 바로 죽게 되니(則死, 必死, 欲死, 卽死) 어

67) 내용구분은 신동원(2001)의 分類를 참고하였다. 前掲書, pp.247-259

떠어떠한 치료를 하면 깨어나게 되는(卽醒, 卽甦, 立甦, 卽愈, 卽活) 경우로 본서에서는 中風, 破傷風, 中寒, 陰陽易, 中暑, 氣厥, 痰厥, 食厥, 尸厥, 卒死, 中惡, 鬼壓, 霍亂, 入井塚卒死, 自縊死, 溺水死, 凍死, 饑死, 諸蟲傷, 墮壓傷, 諸藥毒, 諸魚毒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갑자기(卒) 증상이 발생하여 통증이 극심한 경우(頭痛如破, 大痛, 煩悶欲絕, 痛不可忍, 心腹切痛如有物咬)로 본서에서는 頭痛, 心痛, 腹痛, 疝痛, 喉閉, 舌腫, 眛目, 大便不通, 小便不通, 諸獸傷, 狂犬傷, 金瘡傷, 打撲傷, 筋斷骨折傷, 諸刺傷, 湯火傷, 飲食毒, 諸肉毒, 諸果毒, 蟲毒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갑자기(卒) 증상이 발생하여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장차 죽게되는 경우(不急治亦能殺人, 久則令人死, 將死,)로 본서에서는 上氣, 諸骨鯁, 諸蟲誤吞, 咳逆, 吐血, 衄血, 九竅出血, 飲食毒, 諸藥毒, 諸肉毒, 諸菜毒, 疫癘, 大頭瘟, 癰疽, 天疱瘡, 陰蝕瘡, 烟熏毒, 難產, 胞衣不下, 急慢驚風 등이 여기에 속한다.

넷째. 갑자기(卒) 증상이 발생하여 해당부위에 치명적인 손상(痼疾)이 남게 되는 경우로 본서에서는 誤吞金鐵, 失音, 飛絲入口眼, 眼睛突出, 失欠脫頰, 諸蟲入七竅, 筋斷骨折傷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섯째. 갑자기(忽然) 정신이 이상해진 경우로 본서에서는 邪祟, 癲狂, 痘瘡黑陷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구급의 외형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를 정리해 보면 구급의학은 외감, 내상, 정신, 몸의 각 부분, 위급상황, 여러 가지 상처, 여러가지 중독, 역병과 악병, 부인, 소아 등 일상에서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여 위중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모든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救急醫學이란 일상에서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여 위중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모든 경우를 대상으로하여 治療하는 의학'으로 정의할 수 있다.

4) 구급치료의 중요성

구급상황시 한시라도 지체 말고 바로 치료를 해야 조금이라도 소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니 구급치료의 급박성을 '鬼壓'조의 '不急救則死'라는 말과 '上氣'條의 '早者十全七八 次者十全四五 遲者十不全一', '痘瘡黑陷'條의 '痘瘡黑陷十難救一宜急救之'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아무리 급하다고 아무렇게나 치료할 수 없는 것이니 '氣厥'條의 '不可妄投雜藥'이라 하였다.

5) 제대로 된 구급처치의 중요성

만약 구급처치를 할때 잘못 처치하게 되면 바로 죽게 되거나(卽死, 則死, 必死) 커다란 손상(必致大損)이 있게 되므로 제대로 된 구급처치를 하기위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니 '鬼壓, 霍亂, 舌腫, 諸骨鯁, 自縊死, 凍死, 饑死, 豆腐毒, 巴豆毒, 燒酒毒, 胞衣不下'의 경우이다. 또한 처치뿐만 아니라 약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氣厥'條의 '不可妄投雜藥'은 이를 잘 표현한 구절이라 할 수 있다.

'가위눌린 사람을 천천히 부르면서 서서히 다가가야 하고, 불이 켜져 있으면 그대로 두고 불이 꺼져있으면 켜지말라⁶⁸⁾'고 하였으며, '霍亂은 음식을 크게 피하여야 하니 비록 米湯이라도 배로 들어가면 죽는다⁶⁹⁾'라고 하였으며, '舌腫에 절대로 舌下中央脉을 찌르지 말아야 하니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죽는다⁷⁰⁾', '뺨가 걸렸을 경우에 치아를 손상시키지 말라⁷¹⁾'고 하였으며,

68) 鬼壓- 令人叫喚人不得進前急喚 但移動些少臥處徐徐喚之 且勿火照之元有燈則存 無燈則切不可點燈

69) 霍亂- 霍亂大忌飲食 雖米湯 入腹卽死

70) 舌腫- 切勿刺舌下中央脉血不止則死

‘목매달아 죽으려는 사람의 줄을 갑자기 끊으면 안되고 서서히 풀후 편안히 놓혀야 한다⁷²⁾, 또한 비록 호흡이 돌아오고 눈이 떠져도 按摩를 멈추면 안된다⁷³⁾’고 하였으며, ‘凍死에 만약 먼저 가슴을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장차 반드시 죽게 된다⁷⁴⁾’고 하였으며, ‘흉년이 들었을때 굶어죽는 사람이 많으니 만약 며칠동안 음식을 못 먹어 굶주려 장차 죽으려는 사람이 갑자기 밥과 고기를 많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⁷⁵⁾’고 하였으며, ‘豆腐中毒에 熱酒를 마시면 죽는다⁷⁶⁾’고 하였으며, ‘燒酒를 過飲하여 중독이 된 경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 따뜻하게 하면 되는데, 만약 냉수에 담그게 되면 죽는다⁷⁷⁾’고 하였으며, ‘巴豆毒에는 뜨거운 것을 피해야 한다⁷⁸⁾’고 하였으며, ‘태반이 내려오지 않았을때 절대로 손을 사용하면 안되니 반드시 크게 손상을 입게 된다⁷⁹⁾’고 하였다.

6) 예후의 판단과 구급치료

구급상황이 되었을때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 치료전에 상태를 관찰하여 치료를 하면 살수 있는지 없는지, 회복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명확히 구별하여 치료에 임하였다.

『診解救急方』중에서는 동일증상이라도 부대증상을 보고 치료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 2가지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죽은것 같으나 치료하면 살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제시하였으며 그 외의 상황에 대하여는 치료하면 위중한 증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頭痛중에서도 眞頭痛으로 腦盡痛 手足寒 爪甲靑한 경우나, 心痛중에서도 眞心痛으로 手足靑至節한 경우는 朝發夕死 夕發朝死 라 하여 治法이 없다고 하였다.

卒死나 墮壓傷의 상황에서 心頭가 溫한 사람은 가이 살수 있다고 하였으며, 自縊死한 사람이 心下에 溫氣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루 이상이 지났어도 살수 있으며, 溺水死한 사람은 하루가 지나지 않았으면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의 6가지 상황외에 中風, 破傷風, 中寒, 陰陽易, 中暑, 氣厥, 痰厥, 食厥, 尸厥, 中惡, 鬼魘, 邪祟, 癲狂, 上氣, 腹痛, 疝痛, 霍亂, 喉閉, 舌腫, 諸骨鯁, 誤吞金鐵, 諸蟲誤吞, 飛絲入口, 眼, 眛目, 失音, 咳逆, 吐血, 衄血, 九竅出血, 眼睛突出, 失欠脫頰, 大便不通, 小便不通, 入井塚卒死, 凍死, 饑死, 諸獸傷, 狂犬傷, 諸蟲傷, 諸蟲入七竅, 金瘡傷, 打撲傷, 筋斷骨折傷, 諸刺傷, 湯火傷, 飲食毒, 諸藥毒, 諸肉毒, 諸魚毒, 諸果毒, 諸菜毒, 蟲毒, 疫癘, 大頭瘟, 癰疽, 大風瘡, 天疱瘡, 陰蝕瘡, 烟熏毒, 難產, 胞衣不下, 急慢驚風, 痘瘡黑陷 등 증에서는 급히 치료하라고 하였다.

7) 구급처치후 예후

구급처치후 특이한 징후가 나타날 경우 나타난 징후를 보고 살수 있는지 없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였다.

中風, 慢驚風, 咳逆의 경우 구급처치하고 나타난 징후를 보고 생사판단을 하였다. 구급처치를 하였을때 별다른 신체적 변화없이 바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신체적 변화가 있게 되

71) 諸骨鯁- 不可犯齒攻損牙

72) 自縊死- 不瀉絕斷繩 徐徐鮮下安臥

73) 自縊死- 得呼吸眼開 仍按引莫止

74) 凍死- 若不先溫其心便將火灸必死

75) 饑死- 凶荒之歲 人多饑死 若累日不得食 飢困將死者 頓喫飯及肉物則必死

76) 飲食毒- 食豆腐中毒腹脹氣塞欲死 - 飲熱酒即死

77) 飲食毒- 過飲燒酒中毒- 又以溫湯裸體浸灌令溫煖 若灌冷水即死

78) 諸藥毒- 巴豆毒- 忌食熱物

79) 胞衣不下- 切不可用手 採取必致大損矣

면 그것이 제대로 된 처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더 나빠지는 것인지 판단하여 치료에 임했다. 본서에서는 破傷風, 陰陽易, 喉閉, 舌腫, 墮壓傷, 大頭癰, 癰疽에서는 구급처치를 한후 나타난 변화는 낮고 있는 징후라 하였다.

예를 들어 ‘中風이나 急慢驚風에 皂角末이나 半夏末을 코에 붙어넣었을때 재채기를 하면 치료할 수 있고 재채기를 하지 않으면 치료할수 없다⁸⁰⁾’고 하였으며, ‘咳逆에 乳根二穴에 뜸세장을 떼을때 해역이 멈추면 살고 멈추지 않으면 죽게된다⁸¹⁾’고 하였다. ‘破傷風에 굽벵이즙을瘡口에 바르고 베를 두겹게 덮고 뜨거운 술을 부었을때瘡口감각이 둔해지고 머리에서 땀이 약간 나는 것은 곧 효과가 있는 것이다⁸²⁾’라고 하였으며, ‘陰陽易에 靑竹茹를 끓여 복용했을때 곧 소변이 잘 나오고 陰頭가 약간 붓는 것은 낫는 것이다⁸³⁾’라고 하였고, ‘喉閉에 白礬가루를 喉中에 붙어넣었을때 침이 나오면 낫는 것이다⁸⁴⁾’라고 하였고, ‘舌腫에 우물물을 입에 머금고 皂角刺를 태운 재에 龍腦를 넣어 섞어 혀위에 두었을때 침이 나오는 것은 차도가 있는 것이다⁸⁵⁾’라고 하였고, ‘갈리거나 밝히거나 채였을때 烏鷄한마리를 문드러지게 하여 식초와 섞어 상처위에 간 새베를 위에 발라 건조해지면 바꾸는데 추위를 느껴 떨면서 토하고자 하는 것은 낫는 것이다⁸⁶⁾’라고 하였고, ‘大頭癰에 大黃, 皂角으로 麪糊丸을 菘豆크기로 만들어 菘豆煎湯으로 삼키면 땀이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이다⁸⁷⁾’라고 하였으며, ‘疔瘡에 土蜂房, 蛇蛻을 태워 술과 함께 복용했을때 잠시후 배가 크게 아픈데 통증이 멈추면 疔이 黃水로 변한 것이다⁸⁸⁾’라고 하였다.

8) 구급치료법

救急治療法에는 첫째 縫合法, 整復法, 副木法, 導尿法 등을 포함하는 外科的 治療와, 둘째 內服法과 外用法을 포함하는 藥物治療와, 셋째 單純鍼法, 鍼刺出血法, 鍼刺破法, 揲刺法을 포함하는 鍼治療와, 넷째 間接灸法과 直接灸法을 포함하는 灸治療가 있으며 다섯째로 方術法이나 大醉法등 기타 治療法이 있다. 이들 治療法의 공통점은 바로 즉석에서, 또는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질수 있는 治療法들로 본서에 기재된 순서를 보면 外科的 治療, 藥物治療, 鍼治療, 灸治療의 순으로 되어 있다.

(1) 외과적 치료

1) 縫合法: 金瘡傷이나 소에게 채여 腸出不斷者는 급히 기름으로 문질러 밀어넣고 이어서 桑白皮尖으로 실을 만들어 肚皮를 봉합하고 鷄冠血을 발라두어 기가 泄하지 않게 하거나 뜨거운 오줌 또는 枸杞根皮를 煎湯하여 씻으며 백일간 묽은 죽을 먹은후에 일반적인 음식을 먹는다⁸⁹⁾.

2) 推拿法: 물건에 얻어맞아 안구가 돌출하였으나 만약 眼係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밀어넣고

80) 中風- 皂角末 吹鼻即提起頭頂髮候其噴嚏有嚏可治無嚏不可治
急慢驚風- 慢驚- 半夏 末皂角末 各少許吹鼻中有嚏可治 無嚏不可治

81) 咳逆- 乳根二穴並灸三壯即止不止即死

82) 破傷風- 急取蜻蛚三五箇剪去尾將肚內黃水 塗林瘡口 再滴少入熱酒脈厚覆衣少頃瘡口覺麻而腦微汗立效

83) 陰陽易- 又靑竹茹一升水煎服小便即利陰頭微腫即愈

84) 喉閉- 又白礬末一錢巴豆肉一粒同熬取礬爲末吹入喉中涎出即愈

85) 舌腫- 又井水嗽口皂角刺燒灰入龍腦少許糝舌上下出涎即差

86) 墮壓傷- 被壓墮或舟中轢馬踏牛觸- 烏鷄一隻毛杵爛和酸一升以新布榻傷處取藥塗之乾則易 覺寒振欲吐即差

87) 大頭癰- 大黃酒蒸四兩皂角二兩爲末麪糊和丸菘豆大每五十九丸或七十九丸菘豆煎湯吞下汗出爲效

88) 癰疽- 疔瘡- 取土蜂房一窠一箇蛇蛻全者一燒存性爲細末每一錢空心好酒調服少頃腹中大痛 痛止而其疔已化爲黃水矣

89) 金瘡傷- 金瘡腸出不斷者急以清油熬活推納之 續以桑白皮尖作線縫合 取鷄冠血塗之勿令氣泄 常吃研希粥百日後乃喫飯
諸獸傷- 牛觸腸出不斷者- 急取清油摸腸用手推入以桑皮尖縫合肚皮 以熱溺商洗之 或枸杞根皮煎湯洗之妙

눈가에 두껍게 찢은 생지황을 붙인다⁹⁰⁾.

3) 整復法: 하품하다 턱이 빠졌을때 吹鼻法이나 牽推法을 통해 턱을 교정할 수 있다. 술을 먹여 크게 취하게 하여 잠들었을때 鬚角末을 코안에 붙여넣으면 재채기를 하면서 스스로 턱이 바르게 되게 한다. 또는 한사람은 病人의 머리를 감싸안고 또 한사람은 양손으로 턱을 당겼다가 천천히 밀어넣으면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빨리해야 손가락을 물리지 않는다⁹¹⁾. 뼈가 부러졌을때 擗內外法을 사용하였는데 手足이 折傷되어 뼈가 나와 통증을 참을 수 없을때 밖으로 나온 뼈는 집어넣고 안으로 들어간 뼈는 밖으로 나오게 하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⁹²⁾.

4) 副木法: 手足이 折傷되어 뼈가 나와 통증을 참을 수 없을때 桑木이나 柳木片을 꺾어서 바르게 하여 삼줄로 묶고 때때로 풀어주어 구부리고 펴고 하지 않으면 曲直이 안되어 痼疾을 이루게 된다⁹³⁾.

5) 導尿法: 과일을 요도에 넣어 使用하는 方法과 물체운 병을 소금체운 배꼽위에 얹어놓아 小便을 유도하는 方法이다. 小便不通에 과일의 끝을 제거하여 陰莖의 구멍 깊숙히 三寸정도 넣고 다른 사람이 마름을 붙여넣으면 소변이 통하게 된다⁹⁴⁾. 倒置瓶法으로 小便不通에 사기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종이로 봉하여 病人의 배꼽에 소금 한줌을 넣고 병입구를 배꼽위로 뒤집어 놓고 엎드리면 冷氣를 느끼면서 소변이 통하게 된다⁹⁵⁾.

6) 引法: 가지 박힌데에 薤나 薤白을 씹은 거나 소힘줄이나 사슴의 근육을 탄환처럼 만든 것을 줄에 매어 삼켜서 뼈가 있는데 이르게 되면 당긴다⁹⁶⁾.

잘못하여 갈고리를 삼켰을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無患子나 구슬같은 둥근 물체를 뚫어 갈고리를 부착하여 줄을 매달아 삼킨 갈고리에 이르면 잡아당긴다⁹⁷⁾.

7) 着睛法: 眵目에 소나 양의 筋 여러 갈래를 가는 실처럼 하여 눈동자위에 살짝 올려놓으면 眵物이 筋에 달라붙어 나오게 된다. 벼보리의 까끄러기가 눈에 들어가 나오지 않을때는 새 베로 눈위를 덮고 굵벙이즙을 베위에 문지르게 되면 까끄러기가 베에 붙어 나오게 된다⁹⁸⁾. 眵目に 좋은 목을 물에 갈아 눈에 떨어뜨리고 새뫼로 빨아내면 나온다⁹⁹⁾. 날아다니는 실이 입이나 눈에 들어가면 좋은 목을 질게 갈아 눈안에 떨어뜨리고 눈을 감으면 잠시후에 실이 덩어리를 이루어 눈동자위에 달라붙어 있게 되니 면으로 살짝 눌러 나오게 한다. 人頭垢를 눈안에 넣거나 손톱위의 細屑을 각아 침과 함께 눈안에 넣으면 실이 스스로 모이니 끄집어낸다¹⁰⁰⁾.

8) 裹法: 근육이 손상되고 뼈가 부서진데에 地黃을 끓여서 상처부위를 하루 밤낮동안 10번 바꾸어 싸매는데 1개월이면 근골이 서로 붙게 되며, 게다리중의 髓와 꺾테기 중의 황색을 끓여

90) 眼睛突出- 眼睛被物撞打突出若眼係未斷即推入 內臉於四畔以生地黃細搗厚付之

91) 失欠脫頰- 取酒飲令大醉 睡中吹皂角末入鼻令嚏即自正

失欠脫頰- 一人抱定病人頭 一人以兩手牽其頰 以漸推之則復入 矣當疾出其指恐咬傷

92) 筋斷骨折傷 (중략) 手足折傷出白痛不可忍 (중략) 用手若出外則須擗入內若出內則須擗入外看骨歸舊白

93) 筋斷骨折傷- 手足折傷出白痛不可忍- 用桑木或柳木片夾定麻繩線杞時時解杞拽屈拽直否則愈後曲直不得成痼疾

94) 小便不通- 葱葉除尖端納陰莖孔中深三寸虛令人用口吹氣入即通

95) 小便不通- 磁瓶滿盛水以紙封四口 病人臍內入鹽一捻 倒置瓶口覆在臍上偃臥如覺冷小便即通

96) 諸骨鯁- 嚼薤或薤白 繩繫而吞之到鯁處引之 鯁則牛筋或鹿筋追軟如彈丸 用如上法弓絃不可

97) 誤吞金鐵- 誤吞鉤不得出多- 取無患子 或珠圓物貫着鉤繩推令前入至鉤所 又復推以牽引即出

98) 眵目- 取牛羊底筋髓如細絲 着睛上輕按之眵物着筋出即愈, 稻麥芒入眼不出 以新布覆目上取蟻蟻汁布上摩之其芒出着布上妙

99) 眵目- 好墨水研点眼上以新筆繳出妙

100) 飛絲入口眼- 好墨濃磨点入目中閉 少時其絲自成塊 着在眼睛上却以綿輕輕惹下即愈, 人頭垢點入眼中, 刮取人手脚爪上細屑和津唾点眼中其絲白聚拔去之

서 상처중에 넣고 싸매면 근골이 붙게 된다¹⁰¹⁾.

9) 切斷法: 태반이 내려오지 않으면 급히 작은 물건을 연결하여 늘어지게 한후 臍帶를 끊어야 한다¹⁰²⁾.

10) 물리적인 方法사용

• 痛齒: 鬼魘에 발뒤꿈치나 엄지손톱가장자리를 아프게 깨문다¹⁰³⁾.

• 推身交轉: 燒酒를 過飲하여 中毒이 되었을때 먼저 옷을 벗기고 몸을 水道없이 굴려 토하게 되면 깨어난다¹⁰⁴⁾

• 搖法: 金瘡으로 腸이 나와 들어가지 않을때 病人을 자리에 눕히고 네모서리를 각각 네사람이 들고 흔들면 장이 스스로 들어간다¹⁰⁵⁾

• 捍屍法: 얼어죽으려할때에 모포나 거적으로 싸서 동아줄로 묶은 다음 평평한 곳에 두고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서서히 굴리면 사지가 따뜻해지면서 살게 된다¹⁰⁶⁾.

• 挽牽法: 霍亂으로 吐瀉가 심할때 男子는 음경을 잡아당기고, 여자는 乳近兩傍을 잡아당긴다¹⁰⁷⁾.

• 出水法: 물에 빠져 죽으려 할때 부엌의 뜨거운 재를 머리만 내놓고 몸위에 덮으면 七竅에서 물이 나오며, 소등위에 가로로 얹어두고 양쪽에서 사람이 부축하여 서서히 가면 물이 나온다¹⁰⁸⁾

• 吹耳法: 鬼魘, 自縊死, 諸蟲入七竅에 竹管을 귀에 대고 힘껏 불게 한다¹⁰⁹⁾.

• 敲法: 벌레가 七竅로 들어갔을때 작은 銅을 귀주변에 두고 두드려 울게 하면 벌레가 나온다¹¹⁰⁾.

• 魔法: 中寒, 筋斷骨折傷, 自縊死의 경우에 魔法을 사용하고 있다¹¹¹⁾.

• 枕法: 벌레가 七竅에 들어갔을때 복숭아잎으로 베개를 만들어 베고 자면 나온다¹¹²⁾

• 이동법: 中寒으로 몸이 차가와서 맥이 끊기려할때에 급히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¹¹³⁾ 中暑

101) 折傷筋斷骨碎 - 地黃熬之裹傷一日一夜可十易 一月筋骨連續, 蟹脚中髓及殼中黃微熬納瘡中包裹即連筋骨

102) 胞衣不下- 宜急斷臍帶以小物繫墜 用心控繫然後切斷 不然則胞上 掩心而死

103) 鬼魘- 痛齒其足根 及拇指甲際

104) 飲食毒- 過飲燒酒中毒- 初覺便脫衣推身交轉無數吐之即甦

105) 金瘡傷- 金瘡腸出不能納- 又令四人執病人臥席四角舉搖之腸自入

106) 凍死- 用氈或蒿薦裹死人以索繫定放平穩處令兩人對面輕輕交轉往來如捍屍法四肢溫和即活

107) 霍亂- 吐瀉甚- 男子以手挽其陰牽之 女子則挽其乳近兩傍牽之最妙

108) 溺水死- 竈中熱灰二三石埋其身只出頭面水出七孔即活, 將牛一集橫載死者腹覆牛背上兩邊人扶徐徐而行水出亦活

109) 鬼魘- 令兩人以竹管吹兩耳

自縊死- 更令兩以竹管吹兩耳勿輟

諸蟲入七竅- 一切虫物入耳不出- 以竹管入耳中用口氣盡力吹出最妙

110) 諸蟲入七竅- 又取小銅哭於耳邊敲之亦出

111) 中寒- 體冷脉欲絕死在朝夕急尋置煖室以乎灸火摩病人胸腹間取

筋斷骨折傷- 以手摩傷處

自縊死- 勿令泄氣一人以脚踏其兩肩挽其髮常令懸急勿使縱緩一人以手據按胸上數摩動之一人摩擦臂脛屈伸之雖得呼吸眼開仍按引莫止

自縊死- 一人以手據按胸上數摩動之 一人摩擦臂脛屈伸之

112) 諸蟲入七竅- 桃葉作枕枕之亦出

로 갑자기 쓰러졌을때는 급히 시원한곳으로 옮긴다¹¹⁴⁾

• 깨우는법: 가위눌렸을때는 가슴위의 손을 아래로 내리고 서서히 부르는데 불이 켜져 있으면 그대로 두고 불이 켜져 있지 않았으면 절대로 불을켜지 않는다¹¹⁵⁾.

11) 影法: 眊目에 蜂蟬 등을 손으로 쥐고 눈위에 그림자를 비추면 沙石이 스스로 나온다¹¹⁶⁾

12) 填穀道: 목매달아 죽으려 할때 옷을 두겹게 말아 항문을 막아서 기를 泄하지 않게 한다¹¹⁷⁾. 물에 빠져 죽으려 할때 皂角末을 천으로 싸서 항문중에 넣는다¹¹⁸⁾. 燒酒를 過飲하여 中毒이 되었을때 얼음을 깨어 입안과 항문에 넣으면 깨어난다¹¹⁹⁾

13) 脫衣法: 癡狂에 옷을 벗긴다¹²⁰⁾.

14) 拔鬚法: 미친개에게 물렸을때 患人의 정수리에 있는 2-3개의 붉은색 터럭을 뽑아 버린다¹²¹⁾.

15) 扎法: 코피날때 井華水로 溫紙를 이마위에 붙이고 左鼻衄이면 실로 左手中指를 묶고, 右鼻出血이면 左手中指를 묶고 兩鼻出血이면 左右 모두 묶는다¹²²⁾.

(2) 약물치료

본서에서 사용된 약물법에는 내복법과 외용법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內服法

내복법은 단순복용법과 吐法, 下法, 吐瀉法으로 나눌수 있다.

① 단순복용

• 구급시 사용되는 단방

복용후에 吐나 瀉로 연결되지 않고 단순히 복용만 하는 경우로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흘려넣어주고(灌),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는 마시거나(飲) 삼키게(服) 한다. 약물 한가지만 사용한 單方과 여러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複合處方이 있다. 단방은 끓여서(煎) 복용하거나, 汁을 내어 복용하거나, 약재를 태워 재(燒灰)를 복용하기도 하고, 가루로(末) 만들어 가루자체를 복용하거나, 가루를 溫水·薑湯·酒·百沸湯·童便·葱白湯 등과 더불어 복용하였다.

단순복용중 단방을 이용한 치료는 본서에서 69개의 병증중 破傷風, 食厥, 金瘡傷, 打撲傷, 諸刺傷, 湯火傷 등 6항목을 제외한 63개의 병증에서 한 병증당 여러 가지의 단방들이 이용되고 있는데 약물을 이용한 치료법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香油, 溺, 醋, 葱白, 川椒, 鷄卵, 白礬, 斑猫, 乾薑, 鼠, 馬藷葉, 皂角, 百草霜, 便香附, 蒲黃, 馬藷根, 地龍, 薄荷, 桂皮, 木瓜, 牽牛, 鳳仙花子, 射干, 馬藷花, 雄雀糞, 蟻螯, 梅, 桂心, 沙參, 檳榔, 梔子仁, 童女裊近陰割, 室女月經布, 手足指爪甲, 久汗衣, 臘雪水, 田螺殼, 胡椒, 川烏, 白犬斷頭取熱血, 蠶退

113) 中寒- 體冷脉欲絕死在朝夕急尋置煖室

114) 中暑- 夏月中暑卒死急扶在陰涼處

115) 鬼壓- 但捻下心上手然後徐徐喚覺兼以方術治之

鬼壓- 令人叫喚人不得進前急喚 但移動些少臥處徐徐喚之 且勿火照之元有燈則存 無燈則切不可點燈

116) 眊目- 蜂蟬一枚手捲其背於眼上影之沙石自出

117) 自縊死- 用手厚裹衣物緊填穀道 勿令泄氣

118) 溺水死- 外用綿裹皂角末納穀道中

119) 飲食毒- 過飲燒酒中毒- 碎冰納口中及肛門以醒爲度

120) 癡狂- 宜奪其衣

121) 諸獸傷- 狂犬咬傷- 患人頂心有二三紅鬚即拔去之

118) 衄血- 以井華水溫紙貼頂心上 如左鼻衄以線扎左手中指 右鼻出血扎左手中指 兩鼻出血左右俱扎卽止

紙, 半天河水, 野人乾糞, 鐵液, 桃泉酒, 虎溺肉, 狐肝, 腸肚, 鷹肉, 鷹肉角及瓜, 狐狸皮鼻端黑處, 牛陰莖, 黃獾皮, 林禽青, 秬藟葉 등 단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餓死시 嚥津液法과 물마시는법을 특별히 기술하고 있다. 굶어죽으려할때 혀로 치아의 상하를 문지르면 진액이 생기니 이것을 삼킨다. 하루에 360번 삼키는데 1000번에 이르게 되면 자연히 배고프지 않게 되며¹²³⁾, 굶어죽으려할때 만약 물이 있으면 왼손으로 물을 움켜쥐어 먹거나 松栢葉을 가늘게 썰어서 물과 함께 두스씩 하루에 2-3升을 마신다¹²⁴⁾ 고 하였다.

• 구급시 사용되는 복합처방

구급시 사용되는 처방약은 본서에 처방명이 기록되어 있는 처방과, 처방명이 없이 제조법만 기록되어 있는 처방이 있는데, 이중 처방명이 있는 처방중에서도 제조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처방이 있으며 처방명이 없이 단순하게 여러 약물을 한꺼번에 사용한 단순복방이 있다. 본서에서 쓰인 처방약은 蘇合元, 清心元, 龍腦蘇合元, 人蔘膏, 白附子散, 理中湯, 生熟湯, 薑鹽湯, 抽刀散, 木萸散, 側柏散, 麝香散, 活血散, 返魂追命再造散로 15가지로 蘇合元 8회, 清心元 4회, 그외의 처방은 각 1회씩 사용되고 있다. 위의 처방약들은 대부분 丸(元)이나 散제로 薑湯, 竹瀝汁, 溫酒, 酒, 柿蒂煎湯 등으로 더불어 복용하고 있다.

첫째 처방명과 제조법이 기록되어 있는 처방으로는 人蔘膏¹²⁵⁾, 白附子散¹²⁶⁾, 理中湯去白朮加肉桂赤茯苓¹²⁷⁾ 이 있다.

둘째 처방명만 있고 제조법이 따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처방으로는 蘇合元, 清心元, 龍腦蘇合元이 있다. 蘇合元은 기궤, 시궤, 즐사, 귀염, 심통, 해역, 익수사, 타압상에 쓰였고, 清心元은 중풍, 담궤, 급만경풍, 두창흑함에 쓰였고, 龍腦蘇合元은 중풍에 쓰였다.

같은 구급 상황에 東醫寶鑑에서는 蘇合元, 清心元을 蘇合香元, 牛黃清心元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다른 서적들에서도 蘇合元, 清心元이라고 쓰여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것은 蘇合香元, 牛黃清心元을 부르기 간편하게 蘇合元, 清心元이라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따로이 제조법을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일상적으로 급할때 사용하고 있던 처방였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셋째 처방내용만 있는 경우로 인용문헌과 본서의 제조법이 같은 처방이나 인용문헌에는 처방명과 제조법이 있지만 본서에는 처방명이 없이 제조법만 기록되어 있는 처방으로 生熟湯¹²⁸⁾, 薑鹽湯¹²⁹⁾, 抽刀散¹³⁰⁾, 木萸散¹³¹⁾, 側柏散¹³²⁾, 麝香散¹³³⁾, 活血散¹³⁴⁾, 返魂追命再造散¹³⁵⁾

123) 餓死- 飢餓欲死 以舌攪上下齒取津液而嚥之 一日得三百六十嚥 漸可至千自然不飢

124) 餓死- 若有水 以左手掬水 飲, 又取松栢葉細切和水服二合一日二三升

125) 上氣: 卒上氣喉閉 (중략) 人蔘膏求之 人蔘濃煎取汁以竹瀝薑汁放開服之 日五六服之 如無蔘膏 用獨蔘湯救之 早者十全七八 次者十全四五 遲者十全一

126) 頭痛: 頭痛連齒痛甚者名曰厥逆頭痛 宜白附子散

白附子散 白附子一兩麻黃川烏天南星各五錢全蝎五箇乾薑朱砂麝香各二錢半右爲末溫酒調一字服訖去枕臥少時

127) 疝痛: 疝痛自臍下上衝名曰奔豚 此證最急 理中湯去白朮加肉桂赤茯苓救之

理中湯 人蔘白朮乾薑炮 甘草炙 右剉五錢水煎服

128) 霍亂: 乾霍亂 (중략) 百沸湯半碗新汲水半碗合和投熱鹽一合攪探吐之亦甦

129) 霍亂: 乾霍亂 (중략) 鹽一兩生薑半兩炒童溺二盞同煎至一盞服之即差

130) 心痛: 斑貓七箇頭翔足全者 胡椒四十九粒右同炒黃 吹去斑貓取椒爲末一服溫酒調下立效

131) 霍亂: 般暈 (중략) 急取枯白礬末一錢百沸湯點服 無只鹽一匙醋一盞同煎服鹽梅鹹酸皆可服之

132) 吐血: 卒吐血危重者 側柏葉二兩半人蔘荊芥穗燒灰各一兩爲末每三錢入白麩二錢新汲水調如稀糊吸服

133) 衄血: 卒衄血不止取百草霜末二錢水調服又吹入鼻中

134) 筋斷骨折傷: 手足折傷出血痛不可忍 用菉豆粉炒上炒紫色熱酒酸調成膏厚付傷處用桑木或柳木片夾定

이 있다.

넷째 인용문헌에도 없고 본서에 처방명도 기재되지 않고 단순하게 여러 약물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로 ‘同煎’, ‘…取汁’, ‘…搗末’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諸藥毒에 甘草 黑豆 薺芎 同煎服, 癰疽에 大黃 甘草 煎服 등을 들 수 있다.

본서에서 쓰인 처방약은 蘇合元, 清心元, 人蔘膏, 白附子散, 理中湯, 生熟湯, 薑鹽湯, 抽刀散, 木萸散, 側柏散, 麝香散, 活血散, 返魂追命再造散의 14가지이며 薑湯, 竹瀝汁, 溫酒, 酒, 柿蒂煎湯 등으로 더불어 복용하였다. 이중 蘇合元, 清心元은 다른 서적들에서는 蘇合香元, 牛黃清心元이라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서에서 부르기 간편하게 蘇合元, 清心元이라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따로이 제조법을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일상적으로 급할때 사용하고 있던 처방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② 吐法:

中風, 痰厥, 食厥, 頭痛, 心痛, 霍亂, 墮壓傷, 諸肉毒, 諸魚毒, 諸果毒, 諸菜毒, 蟲毒의 구급증상에 人頭垢 3, 瓜蒂 2, 鹽, 油, 茗, 生薑鹽湯, 鹽湯+皂角末, 百沸湯+新汲水+鹽, 烏鴉右翅羽, 蘆葦根汁, 人糞汁, 香油, 甘草濃煎湯, 櫛木北陰白皮濃 을 熱水, 溫水, 水 2, 藜蘆+麝香 薑汁, 酒와 더불어 복용하여 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③ 下法(瀉法):

飮食毒, 蟲毒에 白扁豆末, 續隨子末를 복용하여 瀉下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④ 吐瀉法:

諸藥毒, 蟲毒에 井水, 甘草白礬末을 복용하여 토사법을 사용하고 있다.

2) 外用法

본서에서는 외용법을 설명하는 글자는 주로 ‘擦, 仆, 塗, 貼, 罨, 置, 噴, 洗’ 등이다.

외용법은 擦牙法, 擦法, 塗布法, 塞鼻法, 吹鼻法, 吹耳法, 香法, 浸洗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용법중에서 塗布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① 擦牙法: 中風에 烏梅, 南星, 細辛을, 破傷風에 蜈蚣을, 失欠脫頰에 鹽梅를, 慢驚에 丁香, 全蝎, 朱砂를 가루내어 문지르면 꼭 다물린 입이 열린다고 하였다.

② 擦法: 蜈蚣咬에 토란줄기를 짓이겨 문지르라고 하였다.

③ 塗布法: 본서에 쓰인 도포법의 대부분은 百草霜, 石灰, 薄荷, 葱白, 鼠, 蚯蚓 등을 태워 재로 만들거나, 가루로 만들거나 씹어서 상처(舌腫, 諸獸傷, 諸蟲傷, 金瘡傷, 打撲傷, 墮壓傷, 筋斷骨折傷, 諸刺傷, 湯火傷, 癰疽)에 바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卒死에 雄鷄冠血을 얼굴에 바르고, 失欠脫頰에 南星薑汁을 바르고, 大便不通에 生大田螺三箇를 鹽一匙와 枳殼을 동시에 갈아 배꼽하일촌에 붙여두거나, 小便不通에 田螺 살아있는 것이나 蒿菝를 갈아 배꼽위에 붙인다.

④ 塞鼻法: 喉閉, 飛絲入口眼, 衄血에 巴豆肉, 石菖蒲, 生地黃滓, 大口漁皮蘸水를 코에 막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⑤ 吹鼻法(嚏法): 卒死, 中惡, 鬼魘, 頭痛, 咳逆, 衄血, 墮壓傷, 大頭瘟의 증상에 皂角 7, 半夏 4, 南星細辛, 百草霜末, 亂髮燒灰, 人中白+麝香, 玄胡索+川芎+藜蘆를 가루내어 코에 붙여넣어 재채기를 하게하는 方法이다.

⑥ 含嚥法: 諸骨鯁에 縮砂甘草 가루나, 飴糖을, 失音에 杏仁桂心 各一兩을 蜜丸으로 하여 입

135) 大風瘡: 治法皂角刺一二斤剉九蒸九曝研爲末濃煮大黃湯調下一錢一旬日神效

에 머금어 증상을 치료하고 있다.

⑦ 點眼法: 眇目에 蓑荷根을 즙을 내어 눈에 점안하고 있다.

⑧ 浸洗浴法: 入井塚卒死에 手足을 鹽湯에 담그고 胸腹을 씻으면 살아나고, 霍亂에 蓼를 질게 다려 手足을 적시고, 眇目에 大麥을 다려 눈을 씻고, 大風瘡에는 柳桑 槐楮나, 浮萍 筆草를 목욕물에 넣어 몸을 씻고, 疝痛에는 수족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巴豆毒에는 수족을 냉수에 담그고, 燒酒中毒에는 溫湯에 몸을 담가 치료하고 있다.

⑨ 香法(嗅法): 舌腫에 葶麻子油를 喉閉에 巴豆肉을 咳逆에 流黃 乳香을 태운 연기를 씌어 증상을 회복시키고 있으며 蜈蚣이 귀에 들어갔을때 猪脂 脂牛를 蟻子가 귀에 들어갔을때는 香肥脂를 태운 연기를 귀에 대면 蜈蚣, 蟻子가 나온다고 하였다.

10. 吸毒法: 지네에게 물렸을때 거미에게 그 독을 빨아들이게 하여 거미가 죽으면 급히 물속에 던져 살면 다시 독을 빨아내게 한다¹³⁶⁾. 疔毒을 빨아내는 법은 큰 지네 한마리를 疔위에 놓아 독을 빨게 하는데 3-5마리면 독이 없어지게 된다. 거미가 피곤해지면 물속에 담그면 다시 살아난다. 지렁이 8-9마리를 갈아 문드려서 술과 함께 복용하고 재는 疔위에 붙이면 독기가 나오게 된다¹³⁷⁾.

(3) 침치료

침법에서는 자침만 하는 단순침법과, 자침하여 출혈을 시키는 침자출혈법과, 자침하여 터트리는데 침자파법을 사용하였으며, 침이 없을때 · 침을 가지러 갈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서 손톱으로 찌르는 도자법을 사용하였다.

① 단순침법: 中風, 邪祟, 喉閉, 舌腫, 大風瘡, 難産의 부분에서 合谷 2회, 少商 2회, 人中, 三陰交, 上星, 足三里, 尺澤, 風府, 神門, 關衝, 竅陰, 隱白, 照海, 然谷, 風池, 足大趾爪甲下, 肌肉, 骨髓 각 1회씩 사용하였는데 이중 喉閉를 제외하고는 단순하게 1-3개의 혈자리만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大風瘡을 치료하는 혈자리는 따로 제시하지 않고 肌肉, 骨髓를 刺하라고만 되어 있다.

② 針刺出血法: 諸獸傷, 霍亂, 喉閉, 舌腫, 眼睛突出, 癰疽, 大風瘡를 치료할 때 被傷, 手十指背近爪甲, 兩臂腕中及兩膝腕有紫黑點處, 血惡, 舌下兩傍大脉, 舌尖, 舌上, 瘀血, 其絲, 身上肉黑處, 委中을 자침하여 출혈시키라고 되어 있는데 출혈시키는 자리는 주로 病處로 瘀血이 있는 곳을 자침하여 惡血을 빼내는 것이다. 霍亂의 手十指背近爪甲과 大風瘡의 委中을 침자출혈시키는 것은 기혈소통과 관련이 있다. 大風瘡에서는 三稜鍼을 사용하여 출혈시키고 있다. 침자파법은 中惡을 치료할때만 사용하였는데 上脣裏有如黍米粒을 刺하여 터트리라고 되어 있다.

③ 搯刺法: 中風을 치료할 때 사용하였는데 人中을 급히 엄지손톱으로 찌르라고 되어 있다.

(4)灸治療

구법에는 직접구법과 간접구법을 사용하였다.

① 直接灸法: 中風, 中寒, 尸厥, 卒死, 中惡, 鬼魘, 邪祟, 癲狂, 心痛, 腹痛, 疝痛, 咳逆, 霍亂, 難産, 胞衣不下, 急慢驚風, 諸蟲入七竅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氣海 9회, 百會 5, 關元 5, 人中 4, 臍中, 期門, 中脘, 間使, 獨陰, 大敦, 兩足大拇內離甲, 產母右足小指尖頭上 각2회, 大椎, 足三里, 風池, 肩井, 曲池, 右手足拇指相并縛定令艾炷半在瓜上半在肉上, 陰莖頭, 隱白, 中極, 乳根, 臆中, 天樞, 兩乳頭黑肉上男左女右, 顙會, 蛇尾 각1회씩 나오고 있다. 뜸뜨는 횟수는

136) 諸蟲傷- 蜈蚣咬- 取蜘蛛吸其毒氣蜘蛛死急投水中可活 更用生者吸之

137) 癰疽- 疔毒- 吸疔毒法取大蜘蛛一箇放疔上自嘔其毒連易三五箇其毒自敗以蜘蛛困則沈水中以活之爲妙 取蚯蚓八九條搖爛和酒飲之 滓貼四圍留頂出毒氣

적게는 3회에서 많게는 100-200장씩 뜨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10장이상씩 지속적으로 뜸을 이용하고 있다.

② 間接灸法: 癰疽와 霍亂에 사용되었는데 隔蒜灸法과 隔鹽灸法을 사용하였다. 疔頂에 隔蒜灸法을 사용하였고 靨란에 臍中에 隔鹽灸法과 더불어 氣海에 直接灸法을 시행하고 있다.

침치료와 구치료를 살펴보았을 때 구급상황에서 침치료보다 구법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癰疽’에 ‘但瘡上灸至二三百壯無不愈 但早覺早灸爲佳 一二日十灸十活三四日六七活五六日三四活 七日則不可灸 惟頭爲陽聚艾炷宜小宜少而小灸之’, ‘咳逆’에 ‘服藥不效則宜灸之 不此即死’ 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구급치료를 시灸치료가 중요하며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시행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5) 기타 치료법

方術과, 大醉法이 있는데 方術은 禳法에 難産에 産母가 항상 입던 옷을 거북이 머리에 덮어 두면 쉽게 해산한다거나, 海馬나 石燕子나 날개를 산모양손에 쥐어주면 쉽게 해산한다는 것과, 胞依不下시 사용하였는데 이는 産母의 속옷을 우물위에 덮어두는법이 있으며 또한 送蟲法, 驗蟲法등이 있다. 이는 사람이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도 긴급상황에서 자연의 힘을 빌려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大醉法은 熊虎咬傷, 말의 피나 땀이나 氣가 상처부위에 들어갔을 경우 항상 大醉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실제 치료목적보다는 통증을 잊게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9) 구급처치후 회복법

구급처치를 제대로 하고 나서도 회복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죽게 되거나 증상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본서에서는 특히 霍亂, 餓死, 大風瘡의 구급처치후 회복법을 제시하고 있다.

‘霍亂에서는 반드시 吐瀉가 멈춘후 반나절이 지나기를 기다려 배고픔이 심해지면 멀건 쌀죽을 주어야 한다. 또한 마땅히 얼음물을 주어야 하며 뜨거운물이나 燒酒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¹³⁸⁾’고 하였으며, ‘餓死시 마땅히 먼저 쌀죽의 맑은 부분을 천천히 삼켜 인후와 腸을 滋潤하게 하여 하루가 지난후 점차 묽은 죽을 자주 먹고 수일이 지난후 죽과 연한 밥을 먹으면 살아나게 된다¹³⁹⁾’고 하였으며, ‘大風瘡의 경우는 세상일을 피하고 酒色魚肉鹽漿辛熱食物을 끊고 마음을 맑게 하고 약을 복용하면 가이 낮게 된다¹⁴⁰⁾’고 하였다.

10) 예방법

구급상황이 되었을 때 구급처치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구급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니, 본서에서는 ‘狂犬咬傷, 疫癘, 大頭癩’의 경우의 예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狂犬咬傷은 평소에도 杏仁을 먹음으로써 그 독을 예방할 수 있다¹⁴¹⁾’고 하였으며, ‘疫家에 들어가도 전염되지 않는 방법이 있으니 雄黃末과 香油를 질게 다려서 鼻孔中에 바르면 비록 病人과 같은 침상을 사용해도 전염되지 않는다. 香油를 鼻孔에 바르고 종이를 코속 깊이 넣어 噴嚏하게 하는 것도 역시 좋다¹⁴²⁾’고 하였으며, ‘大頭癩에 嚏藥을 三五次 사용하

138) 霍亂- 必待吐瀉止過半日飢甚方可與稀米飲 又宜冰水不可飲熱湯飲燒酒必死

139) 餓死- 宜先以米粥稍稍嚥下 令咽腸滋潤過一日漸與稀粥頻啜之 過數日乃與調粥軟飯則自然生活

140) 大風瘡- 惟棄世務斷酒色魚肉鹽漿辛熱食物清心服藥庶可得愈

141) 諸獸傷- 狂犬咬傷- 常食杏仁以防其毒

142) 疫癘- 入疫家不傳方染 取雄黃末香油濃塗鼻孔中雖與病人同床亦不相染口以香油塗鼻孔以紙探鼻噴嚏亦佳

여 毒氣를泄하게 해야하니 左右看病之人이 매일 嘔藥을 사용하면 전염되지 않으며 十日이 지나면 치료하지 않아도 낫게 된다¹⁴³⁾라고 하였다.

11) 『諺解救急方』의 부록

諸穴論, 俗方藥, 瘡疾藥, 常食相忌, 藥酒方文의 5부분이 있는데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대중들도 鍼灸치료를 할 때에 정확한 治療를 할수 있도록 諸穴論을 따로 실었으며, 瘡疾은 救急상황이 아니므로 부록으로 달게 되는데 이를 통해 당시 瘡疾이 민간에 많이 퍼져 있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俗方藥은 민간에서 使用되던 處方으로 效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모아둔 것으로 보인다. 常食相忌, 藥酒方文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때문에 부록으로 달아둔 것으로 보인다.

III. 結論

1. 『諺解救急方』의 편찬배경은 전쟁과 기근으로 피폐해진 민생안정과, 전쟁으로 인하여 망실된 『救急方』을 대체하기 위하여 선조의 명을 받고 許浚이 1607년에 編刊하게 된 것이며, 현재 선조 41(1608)에 간행된 목판본과 필사본 3본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위급상황에서 누구라도 쉽게 처치할수 있도록 하는 『鄕藥救急方』, 『救急方』, 『救急簡易方』, 『救急易解方』, 『村家救急方』 등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2. 『諺解救急方』의 형성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救急方』과 『東醫寶鑑』을 비교 조사해본 結果 본서는 『救急方』과는 전혀 별개이며, 단순히 『東醫寶鑑』중에서 救急에 대한 내용을 축출한 서적이 아니라 『東醫寶鑑』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은 독립적인 서적임을 알 수 있었다.

3. 『諺解救急方』의 형태적 특징은 ① 인용문헌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② 『諺解救急方』의 출간은 감고관 뿐만 아니라 부제조·제조·도제조까지 관련되어 있으며, ③ 한문원문에 바로 이어 언해가 되어 있고, ④ 기본적으로 병명, 증상, 간단한 치료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4. 『諺解救急方』의 인용문헌은 『東醫寶鑑』과 비교하여 원전을 역주적해보니 本草, 綱目, 得效, 入門, 丹心, 正傳, 種杏, 醫鑑 등이었으며 여기에서 두 가지 사항이 주목할 만한데 ① 단 방약에 관한 정보를 담은 『본초』를 월등하게 많이 인용하였다는 점으로 본서의 내용구성에 있어서 백성들이 병이 들었을때 쉽게 약을 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單方藥 위주로 기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② 이전의 구급방이 거의 인용하지 않은 명대 의서 의학강목, 의학정전, 고금의감, 만병회춘, 의학입문 등을 자주 인용했으며 반면에 이전의 구급방이 중시한 송대의 성제총록이나 태평성혜방 중에서 성혜방만 단 1회만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5. 『諺解救急方』을 통해서 밝혀낸 救急의 범위는 일상생활에서의 위급상황 전반적인 것을 포괄하고 있는데 ①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바로 죽게 되니 어떠한 치료를 하면 깨어나게 되는 경우, ②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여 통증이 극심한 경우, ③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여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장차 죽게되는 경우, ④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여 해당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이 남게 되는 경우, ⑤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진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6. 『諺解救急方』에서는 救急치료뿐만 아니라 구급치료의 중요성, 救急처치 前後의 예후의

143) 大頭瘟- 用嘔藥三五次以泄毒氣左右看病之人日用藥嘔之必不得染過得十日不治自愈

판단, 예방 등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7. 『診解救急方』에서 사용하고 있는 救急치료법에는 ① 봉합, 정복법, 부목법, 도뇨법 등을 포함하는 외과적 治療와, ② 단순복용법, 吐法, 下法, 吐瀉法으로 나뉘어지는 내복법과 擦牙法, 擦法, 塗布法, 塞鼻法, 吹鼻法, 吹耳法, 香法, 浸洗法 등으로 나뉘어지는 외용법을 포함하는 藥物치료와, ③ 單純鍼法, 鍼刺出血法, 鍼刺破法, 摺刺法을 포함하는 鍼治療와, ④ 間接灸法과 直接灸法을 포함하는 灸治療가 있으며, ⑤ 方術法이나 大醉法등 기타 治療法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즉석에서, 또는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질수 있는 治療法들로 본서에 기재된 순서를 보면 외과적 治療, 藥物治療, 鍼治療, 灸治療의 순으로 되어 있다.

IV. 參考文獻

- 이재동·김남일 공편, 『중국침뜸의학의 역사』, 집문당, 서울, 1997.
- 안상우 외 학술정보팀, 의방유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서울, 1998.
- 신동원·김남일·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서울, 1999.
-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2001.
-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일지사, 서울, 2000.
- 한국한의학사 재정팀, 한국한의학연구소, 서울, 1995.
- 한의학고전연구소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한국의사문헌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94.
- 허진·홍원식, 許浚의 生涯와 東醫寶鑑에 對한 研究, 한국의사학논문집, 1995.
-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의사문헌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7冊』, 여강출판사, 서울, 1994.
- 金斗鍾, 韓國醫學史, 探求堂, 서울, 1966
- 診解救急方, 診解痘瘡集要, 診解胎產集要, 亞細亞文化史, 서울, 1973
- 國語國文學辭典, 서울, 東亞文化研究所, 서울, 1981
- 국어대사전, 이희승 편저, 民衆書林, 서울, 1997
- 李漢水, 韓國齒史學,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1988
- 金信根, 韓國醫學書巧,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1987
- 安秉禧, 診解의 史的 考察, 민족문화 제11집, 민족문화추진회, 서울, 1985.
- 金信根 主編, 診解痘瘡集要, 韓國醫學大系·37, 여강출판사, 서울, 1994
- 許浚, 『東醫寶鑑』, 남산당, 서울, 2001
- 經國大典. 卷3. 禮典.
- 傅景華·徐巖春, 『中醫急證大成』, 中醫古籍出版社, 1987
- 『향약구급방』, 한국의학대계2, 여강출판사, 1994
- 한글학회, 救急方
- 허중, 『구급간이방언해』, 한국의학대계2, 여강출판사, 1994
- 권건, 『구급이해방』, 동양학총서9집, 단국대학교 출판부, 서울, 1982
- 三木榮, 『朝鮮醫書誌』, 동경, 학술도서간행서, 1973
- 김안국, 『촌가구급방』
- 중종실록

-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2000.
- 박문현, 許任 『鍼灸經驗方』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2002.
- 강연석, 『鄉藥集成方』의 本草 분석을 통한 朝鮮前期 鄉藥醫學의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2003.
- 김민수, 『諺解痘瘡集要』의 醫史學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2003.
- 윤혜정, 언해구급방의 국어학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1997.
- 김중권, 허준의 언해구급방, 언해두창집요, 언해태산집요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울, 1994.